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1

생각을 펼치는 읽기와 쓰기

(1)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0~12쪽

- 01 ① 02 ② 03 ① 04 ④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④

01 (나)에서 맛집과 카페를 다녀오거나 웹툰이나 영화를 본 뒤 자신의 만족도를 별점을 통해 표현하는 별점 제도가 집단 지성의 빛과 그늘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였다.

02 이 글에 별점 제도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집단 지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 맛집과 카페를 다녀오거나 웹툰이나 영화를 본 뒤 자신의 만족도를 표현하는 별점 제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다)에서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주는 행위를 별점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현대 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누구나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인들도 자신의 일상이나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여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고 하였다.

03 ‘빛과 그늘’은 장점과 단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별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해당하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별 개수로 자신의 만족도를 표현하는 것은 별점 제도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장점이거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별점의 분포 양상을 아는 것과 별점을 극단적으로 치우쳐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별점의 분포 양상을 안다고 하더라도 별점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별점 제도는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중간값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고 양극단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용자가 있다면 정상 분포를 이룬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별점 참여자는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그룹에서 뽑은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고 하였다.

05 <그림 2>의 별점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만 평균은 중간값 정도에서 형성되고 <그림 2>의 중간값은 1~5점 별점 중 가

장 중간에 있는 별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별점 평균은 중간값과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① <그림 1>은 별점 평균이 중간값에서 형성되어 있다.

② <그림 1>은 정상 분포를 보이는 그래프로 중간값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려 있다.

④ <그림 2>는 이용자들의 별점이 양극단으로 치우친 경우로, 많은 이용자들이 중간값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그림 1>의 별점 평균은 중간값으로 파악이 되며, <그림 2>의 별점은 양극단으로 나뉘지만 평균은 중간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그림 2>의 별점 평균은 중간값으로 같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06 ㉔의 90%의 사람들은 한발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대부분의 이용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㉔는 전체 이용자 중 극히 일부를 가리키며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별점 평가가 전체 이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10%만의 의견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㉔와 ㉕는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㉕는 ㉔의 의견이 아니라 ㉔의 의견을 열성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한다.

⑤ ㉔, ㉕, ㉖는 모두 별점 제도의 무작위 표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07 이 글에는 별점 제도를 악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에서 별점 제도는 사용 방법이 쉽고 편리하며 소통의 즐거움을 주고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사)에서 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작성자의 자격 조건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안하고 있다.

④ (바)에서 별점 제도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별점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⑤ (아)에서 이용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며 진솔한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08 허위 악성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과 제도의 보완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기술과 제도의 발달에 따라 허위 악성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별점 제도는 좋고 나쁨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③ (아)에서 별점 제도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사)에서 극소수의 이용자가 작성한 허위 댓글이나 극단적인 평가로 전체 별점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⑤ (아)에서 모든 이용자가 진솔한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한다면 별점 제도는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09 허위나 악성 평가를 더 정교하게 걸러내도록 제어 기술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별점 평가나 상품 평이라고 해도 법령상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인의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성되기 전 정교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3쪽

01 ④ 02 ② 03 ②

- 01** 사회적 독서 활동은 책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정보, 의견과 감상 등을 타인과 공유하며 상호 작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수행 평가를 위해 별점 제도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며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적 행위로 타인과 공유하며 상호 작용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 02** 별점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알고 싶다고 하였으나 별점 제도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③ '내용 정리'에서 별점 제도의 개선책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④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에서 그동안 재미로 별점을 매겼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⑤ '글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에서 별점 제도와 관련하여 글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 서 정리하였다.
- 03** 별점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실생활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고, 글쓰이는 별점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므로, 별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은 추가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적용 문제

본문 14~15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③ 07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매겨진 별점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 01** 집단 지성의 개념을 설명한 뒤, 집단 지성에 해당하는 별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집단 지성의 사례로 별점 제도가 제시되었으

나 이와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② 집단 지성의 사례로 별점 제도를 소개하였을 뿐 집단 지성의 사례와 별점 제도의 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지 않다.
 - ④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단 지성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지 않다.
 - ⑤ 별점 제도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단 지성이 활성화 되었을 때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지 않다.
- 02** 1%의 생산자와 9%의 공유자는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별점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1%의 생산자와 9%의 공유자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고, 판매자가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울 때 근거가 된다.

03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전체 이용자가 아니라 일부이므로 평가 결과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평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별점 제도의 평가 결과가 전체 이용자의 생각과 달라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가 적을수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04 <그림 1>의 경우 분포 상황을 알지 못하더라도 별점 평균과 중간값이 일치할 것으로 추론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지 않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그림 1>은 중간값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정상 분포를 이루는 경우이다.

- ② <그림 2>는 양극단에 이용자들이 몰려 있어 평점이 매우 좋거나 나쁜 경우이다.
- ③ <그림 1>과 <그림 2>는 분포 양상이 다르지만 별점 평균이 중간값에서 형성된다.
- ④ 5점 만점에 3점의 별을 받은 음식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음식점의 별점 평균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림 2>의 분포 곡선이 아니라 <그림 1>의 분포 곡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5 <보기>는 별점의 폐해를 보여 주는 사례로 무엇 때문에 별점이 낮은지 알 수 없는 것은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젊은 층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별점을 권력 수단으로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별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 ② 택시 기사들이 승객의 무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낮은 별점으로 배차상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입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 ④ 별점 평균을 고려하여 배차하는 것은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⑤ 별점 평가를 고통스럽고 폭압적인 일방적 실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택시 기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승객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06 ㉓의 ‘열리다’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하루의 영업이 시작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어떤 관계가 맺어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모임이나 회의 따위가 시작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자기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터놓아지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07 사업체의 78%가 입은 피해 경험은 사실과 다르게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사업체의 78%는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2) 주제 통합적 읽기와 논증하는 글 쓰기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8~27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⑤ 07 C-L-L-7
 08 ④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④
 16 ④ 17 ④ 18 ④ 19 ⑤ 20 ④ 21 ③ 22 ㉓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 등의 사실적 속성 유무, ㉔ 상호 작용이나 관계 맺기
 23 ③ 24 ⑤ 25 ② 26 ② 27 ③ 28 ④ 29 ②

01 (가)에서는 지능과 지성의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달하여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한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② 통계 수치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스티븐 핑커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③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02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L). 또한 인간의 감정을 지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인공지능은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할 뿐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낼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ㄴ.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닐 수 있는 단계로 접

근하면 우리가 한 발짝 달아난다고 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또 다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어떤 상황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터넷 공간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04 여러 개의 뿌리와 같은 가지 돌기로 들어온 신호들이 몸통으로 모여 축삭 돌기로 나간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뇌는 신경 세포의 집합으로 신경 세포는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②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하는 것이 신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신경을 타고 이동하던 전기 신호가 신경 세포의 한쪽 끝에 있는 시냅스에 도달하면, 시냅스에서 화학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⑤ 신경 세포를 통한 신호 전달의 기원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05 시냅스에서 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아세틸콜린이 시냅스를 거쳐 다른 신경 세포에 도착하면 신경 세포에서 다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신경 세포이다.

|오답 풀이| ① 양파의 뿌리에 해당하는 가지 돌기로 입력된 신호는 가느다란 줄기에 해당하는 축삭 돌기로 출력된다. 따라서 여러 방향에서 입력된 신호는 하나의 방향성을 지니고 이동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신경 세포들은 시냅스라는 좁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④ 신경 세포를 통한 신호 전달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동물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전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⑤ 신경을 타고 이동하던 전기 신호가 시냅스에서 도달하면 화학 신호(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이 아세틸콜린이 시냅스를 거쳐 다음 신경 세포에 도착하면 다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06 시냅스가 유연하다는 것은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의 강도가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 연결은 강화되고, 그렇지 않은 시냅스 연결은 약화된다는 것을 말한다.

07 이 글에 따르면 특정 행동, 즉 자전거를 타는 행동과 관련된 시냅스를 자주 이용하면(ㄷ), 시냅스 간 연결이 강화되고(ㄴ), 강화된 신경계로 연결된 근육들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ㄱ). 이는 근육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는 셈이며, 이를 자전거 타기를 학습했다고 한다.

08 이 글에서는 신경계의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만든 것이 인공 신경망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통해 인공 신경망의 구조를 신경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신경계와 인공 신경망의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신경계의 학습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달팽이부터 인간까지 신경계의 학습 원리는 같다고 하였다.

② 입력 신호에 입력된 값의 합이 임계값을 넘을 때만 축삭 돌기를 통해 신호를 내보낸다고 하였다.

③ 이 글은 신경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시냅스의 결합 강도가 강할수록 출력 신호의 세기도 강해진다고 하였다.

09 시냅스의 결합 강도가 강할수록 출력 신호의 세기도 강해진다. 기억은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 결합 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이란 출력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시냅스의 결합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 글은 신경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인공 신경망은 신경계의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언급한 다음, 신경계와 유사한 인공 신경망의 구조와 학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는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② 신경계의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인공 신경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경계와 다른 인공 신경망의 독자적인 특징을 부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는 한 가지의 인공 신경망 구조만 제시되어 있다.

⑤ 인간과의 바둑 대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인공지능을 언급한 것은 인공지능도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이와 같은 원리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인공지능의 의의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11 인공 신경망에서는 숨겨진 층의 모든 신경 세포가 계산을 수행하고 그다음 층으로 신호를 넘겨주면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출력층이 아니라 숨겨진 층의 모든 신경 세포가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12 마지막 문단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신경계와 같은 원리로 개발되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인공지능도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같은 학습 원리로 개발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는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③ 인공지능은 인간을 모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곧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④, ⑤ 이 글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나 인공 신경망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지 않았다.

13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각 입장의 특징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14 1문단에서 우리는 인간이나 동물이 어떤 속성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인간이라고 해서 지능이나 의식 같은 속성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우리도 바로 옆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로봇의 경우도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③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도덕적 지위 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감수성이나 종족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여긴다고 하였다.

15 ‘이런 점’이란 ㄱ과 ㄴ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즉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감수성이나 종족적 편견일 수 있으며,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16 ㄱ과 ㄴ은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실적 속성 유무와 무관하게 가치의 문제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 ㄴ은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확대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대우하는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하였다.

18 ㄴ은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ㄴ은 앞의 세 입장과 비교할 때 가장 비직관적이며 일반적 상식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하였다.

② ㄴ은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③ ㄴ은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르은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감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19 글쓴이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느끼는 감정은 로봇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공감 행위에서 비롯된 가짜 감정일 뿐이라는 예상 반론에 대해 오랫동안 인간과 관계를 맺어 온 가축들이나 반려동물들의 경우처럼 인위적 공감도 거짓된 감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 마크 쿠헬버그는 도덕적 지위 문제에서 우리가 대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21 관계론적 접근은 객관적인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대상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 관계의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즉 대상과의 상호 작용이나 관계 위에서 도덕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로 어떤 존재(존재론적 속성)인지를 따지는 일보다 일상적 경험 행위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22 글쓴이는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 부여 문제는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 등의 사실적 속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로봇과 인간이 맺는 다양한 상호 작용이나 관계 맺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 부여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한 후,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는 우리와 로봇이 맺고 있는 다양한 상호 작용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므로 이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24 신경계에서는 시냅스의 결합 강도가 강할수록 출력 신호가 강해지는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이 결합 강도인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적절한 가중치를 얻는다. 인공 신경망에서는 입력이나 출력 모두 0 또는 1의 나열이므로 입력값이 클수록 출력값이 커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글쓴이는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본 후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되므로, 인간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 부여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가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그과 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④ 그과 르의 입장은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⑤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된다는 르의 입장을 살펴보고 있다.

26 (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담자의 견해를 드러내는 동영상이고, (나)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로, (가)와 (나) 모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모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다)는 주장 중심의 글이고, (나)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설명하는 정보 중심의 글이다.

27 주제 통합적 읽기는 읽기 목적에 따라 동일한 화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이나 자료를 찾아 비판적으로 읽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읽기 방법으로, 읽기 상황이나 과제를 고려하여 글을 읽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8 (다)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한 사실적 속성의 유무보다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29 (가)와 (나)를 통해 인공지능은 인간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며 앞으로 더 발달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다)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 로봇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8~30쪽

- 01 ① 02 ④ 03 ③ 04 인공 신경망에서는 0 또는 1로 입력된 값에 적절한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이 임계값을 넘을 때에만 1을 출력하는데, 이때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이다. 05 ② 06 ④
- 07 ② 08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이 없는 강아지 로봇이라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 우리는 강아지 로봇에 감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신경계의 학습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대상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인공 신경망 구조를 신경계에 빗대어 원은 신경 세포에, 화살표 방향은 신호의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신경 세포는 왜 시냅스라는 것을 만들어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바꾸는 것일까? 괜히 구조만 복잡해서 신호 전달이 지체되는 것은 아닐까?' 등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전개하고 있다.

02 신경 세포는 같은 입력값이라도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따라 출력값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신경 세포의 몸통으로 합쳐진 입력값의 합이 임계값을 넘을 때에만 축삭 돌기를 통해 신호를 내보낸다.

03 이 글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과학 분야의 글로, 글쓴이의 가치관은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글쓴이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인공 신경망에서는 0 또는 1로 입력된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이 임계값을 넘을 때에만 1을 출력한다. 이때 가중치는 학습에 따라 바뀌는데,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인공 신경망의 학습 원리이다.

05 이 글은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데 학대해도 되는가?', '왜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까?',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에 어긋나기에 비난받지 않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로봇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6 ㄷ은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봇을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취급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ㄹ은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인공지능 로봇을 도구적으로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07 <보기>에서 피터 싱어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도덕적 지위의 부여에 고통 감수성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피터 싱어는 로봇이 고통을 느끼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ㄷ의 입장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③ 피터 싱어는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처럼 종에 따른 차별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⑤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종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08 ㄹ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 감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소셜 로봇의 일종인 강아지 로봇의 예를 들고 있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31~35쪽

-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해설 참조 07 해설 참조
08 ③ 0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④ 14 ② 15 해설 참조

01 (나)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를 별점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별점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였고(ㄱ), 별점 제도의 순기능으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고, 판매자에게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ㄴ). 또한 (다)에서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로 인한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ㄷ), (나)에서 별점 제도가 집단 지성의 빛과 그늘을 보여 준다고 하며 별점 제도를 집단 지성의 사례로 제시하였다(ㄹ).

02 <보기>에서 사회적 독서란 책을 읽고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행위라고 하였는데, 집단 지성의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03 별점 평가나 상품 평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이유는 법령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로 보아 일반인들도 원하지만 한다면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여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즉 누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나 출처 없는 정보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별점 제도는 여러 사람이 작성한 별점이 모여 평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 즉 집단 지성이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라)에서 별점 제도는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과거의 평가 이력과 해당 상품을 이용한 횟수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면 극단적 평가를 바르게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04 '시사하다'는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의 의미로, ㉠ 대신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양산하다'는 '많이 만들어 내다.'의 의미로, ㉠ 대신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규명하다'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다.'의 의미로, ㉠ 대신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발전하다'는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다.',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다.'의 의미로, ㉠ 대신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정화하다'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의 의미로, ㉞ 대신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키워드 리뷰에서 5개의 항목만을 선택하게 한다고 해서 평가 작성자의 자격 조건이 더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서 예약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방문을 인증한 사용자만 리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작성자의 자격 조건을 실제 이용자로 명확하게 제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등급 서술형

06 | 예시 답 | 집단 지성은 자신의 일상이나 정보를 올려 공유하면 다수의 참여자가 댓글을 달고 공유하면서 정보를 수정, 보완하고, 다수에 의해 검증된 정보가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형성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정보 공유, 정보의 수정과 보완, 객관성 확보의 과정을 (조건)의 형식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집단 지성의 형성 과정을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으나 한 가지 이상의 과정이 누락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술형

07 | 예시 답 | 허위나 악성 평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나 악성 평가를 더 정교하게 걸러내도록 제어 기술을 보완해야 하고, 평가를 달 수 있는 작성자의 자격 조건을 더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적절하게 밝혔으나 그 해결책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8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글을 읽고 다각도로 생각하여 자기 나름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다)에서 도덕적 지위가 동물, 자연, 인공지능 로봇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지위는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덕적 지위의 부여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과의 상호 작용이나 관계 맺기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0 <보기>에서 인공지능 모델 △△이 사람과 실시간 대화를 하면서 보고, 듣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지 진짜 감정을

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으며, (다)에서 △△은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에 진짜 감정이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11 ㉠에서 '넘다'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벗어나 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의 '넘다'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 오답 풀이 | ㉡ '경계를 건너 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일정한 곳에 가득 차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온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어려움이나 고비 따위를 겪어 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12 (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로봇이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일 뿐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

13 (다)의 글쓴이는 인공지능의 사실적 속성과 상관 없이 인간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가올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에서 인공지능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추론할 수 없다.

14 (다)에서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 관계의 방식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이며,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해당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 작용이나 관계 맺기를 통해 생겨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지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정해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등급 서술형

15 | 예시 답 | •예상 반론: 로봇에게 느끼는 감정은 로봇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공감 행위에서 비롯되는 가짜 감정일 뿐이다. / •반론에 대한 반박: 오랫동안 인간과 관계를 맺어 온 가족들이나 반려동물들의 경우처럼 인위적 공감도 거짓된 감정으로 볼 수 없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예상 반론과 반론에 대한 반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예상 반론과 반론에 대한 반박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 우리 문학의 흐름을 따라

(1) 옛 노래의 향기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40~41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④ 06 ⑤

01 (가)는 10구체 향가로, 향가는 화랑과 승려 등에 의해 창작되었으며(①), 주로 신라 때 불리고 고려 초까지 지속되었다(⑤). 또한 한자를 빌려 쓴 향찰로 기록되었으며(②), 처음에는 4구체의 민요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③) 8구체를 거쳐 10구체의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구전되다가 궁중 속악 가사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구전되다가 궁중 속악 가사로 수용된 것은 고려 가요이다.

02 (가)는 죽은 누이와 이별한 슬픔을 노래한 작품으로, 화자는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라고 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불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유한성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불교적 윤회관에 기반한 세계인 '미타찰'에서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미타찰'을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세계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생사 길은/에 있으며' 등의 구절을 통해 화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다가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나는 간다는 말도/묻다 이르고' 등을 통해 볼 때 누이의 죽음이 예고된 죽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인생의 무상감을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태도는 드러나 있으나, 자연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위로받고자 하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03 '가는 곳 모르온저'는 죽은 누이가 간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 자신이 앞으로 어찌 살아갈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인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머뭇거리는 행동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② ㉡은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누이와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누이의 죽음에 대해 '이른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④ ㉣은 죽은 누이와 자신이 혈육 관계임을 한 나뭇가지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04 (다)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두터비', '파리', '백송골' 등을 의인화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권력 구조의 비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달'과 '청풍'을, (다)는 '두터비', '파리', '백송골' 등을 의인화하고 있다.

② (나)는 '한 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다.

⑤ (다)는 사실시조로 중장의 길이가 길어져 (나)와 비해 형식상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다.

05 '드릴 디 업스니'는 자신의 소박한 거처에 더 이상 자연을 들일 공간이 없다는 의미로,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한계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십 년'을 준비(경영)하여 초려 삼간을 마련하였다.

⑤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놓고 본다는 것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과 친화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06 (다)는 조선 후기 사회의 부조리와 폐단을 서민의 눈으로 풍자한 사실시조로, '두터비'는 백성을 수탈하던 탐관오리를 상징하며, 약자에게는 위세를 떨면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대상으로 풍자되고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42~43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① 06 ①

01 「제망매가」는 10구체 향가로 서정 문학에 해당하며, 작품 밖 서술자가 아닌 시적 화자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제망매가」라는 제목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따라서 죽은 누이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 있을 것이다.

② 「제망매가」의 「가(歌)」는 노래라는 뜻이므로 노래의 성격이 강한 문학의 갈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작가 「월명사」는 승려이므로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02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 가지에 나고'를 통해 화자와 누이가 혈육 관계임을 알 수 있다.

03 「십 년을 경영하야」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초려 삼간'을 짓고 자연과 벗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가난 속에서도 편안

한 마음으로 도를 즐김.'의 뜻을 가진 '안빈낙도'이다.

|오답 풀이| ①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③ '방약무인'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유유상종'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를 이르는 말이다.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이르는 말이다.

04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백성을 수탈하던 지방 관리를 상징하는 두터비를 풍자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의 부조리와 폐단을 서민의 눈으로 풍자한 사실시조이다.

05 10구체 향가는 향가 중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④)로, 세 개의 의미 단락 형식으로 구성되었다(②). 그리고 낙구를 '아이' 등의 감탄사로 시작하여 시상을 전환하거나 집약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③).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이후의 고려 가요와 시조 등에 이어졌다(⑤). 그러나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06 「제망매가」는 10구체 향가로 세 개의 의미 단락(4+4+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십 년을 경영하여」와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시조로, 모두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단원 집중 문제

본문 44~45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⑥: 슬픔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면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다짐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역할을 한다. ⑥: 백송골을 보고 도망을 가다가 자빠진 두터비가 잘난 척하는 것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역할을 한다. **06** ① **07** ⑤ **08** 가사인 (가)와 시조인 (나)는 모두 4음보율을 형성하고 있다.

01 (가)는 10구체 향가로 4줄, 4줄, 2줄로 의미 단락을 나눌 수 있다. (나)와 (다)는 시조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의미 단락을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가), (나), (다) 모두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형 GO | 예시 답 | (가)는 신라 시대 향가로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낙구에 감탄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다)와 같은 시조에도 계승되어 초, 중, 종장의 3단으로 구성되고 종장 첫 구절에 감탄사가 사용되고 있다.

02 「미타찰」은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로, 괴로움이 없이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불교적 공간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03 「가슴이 금즉하여」는 백송골을 보게 된 두터비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백송골의 어리석은 모습이 폭로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 파리를 물고」를 통해 강자(두터비)에게 수탈당하는 약자(파리)의 현실이 환기된다.

② 「두힘 우회 치다라 안자」는 약자 앞에서 위세를 떠는 두터비의 모습을,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는 강자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두터비를 대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두터비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④ 「두힘 아래」 아래 자빠진 두터비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⑤ 「날넌 넝식만정 예혈질 번 하괘라」는 두터비가 자빠져서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도 위선을 떠는 모습으로, 두터비에 대한 조소와 비판이 담겨 있다.

04 「강산은 드릴 뉘 업스니」는 달과 청풍을 들이느라 강산은 더 이상 들일 데가 없다는 의미로,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일 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05 (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아이'를 통해 집약하고 있다. 또한 '아이' 이후 화자는 슬픔의 정서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모쳐라' 이전인 중장에서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가다가 자빠진 두터비가 '모쳐라' 이후 종장에서는 태세를 전환하여 잘난 척하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06 (가)는 봄의 경치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고, (나)는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의 '수간모옥'과 (나)의 '초려 삼간'은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07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만족하고 있을 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 화자가 '초려 삼간'에 '강산'은 들여놓을 곳이 없다고 한 것은 그만큼 '초려 삼간'이 소박한 거처임을 부각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풍월주인」은 '맑은 바람과 맑은 달 따위의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수간모옥'에 머무는 자신을 '풍월주인'이라고 한 것은 자연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④ 화자는 '초려 삼간'의 한 간은 자신이 기거하고, 나머지 두 간에는 '달'과 '청풍'을 들이려 한다. 이것은 자연과 친화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08 (가)는 가사이고 (나)는 시조로, 가사와 시조는 모두 4음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옛이야기의 즐거움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48~55쪽

01 ① 02 ③ 03 ① 04 ③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① 13 ① 14 ① 15 ② 16 ②
 17 ④ 18 ④ 19 ④ 20 ② 21 ④ 22 ⑤ 23 ③ 24 ⑤

01 ‘전기적 요소’란 기이하고 환상적인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를 의미하는데, 이 글은 ‘지옥문’, ‘귀신’, ‘염라대왕’ 등의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성진이 추방되는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전지 전능한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2 (가)의 “과인은 스님이~음덕을 입으리라 여겼는데”에서 염라대왕은 성진으로 인해 중생들이 음덕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볼 때 염라대왕이 성진을 훌륭한 승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황건역사는 곧장~성진을 끌고 왔음을 아뢰었다.’, “육관 대사가 황건역사에게 제자 성진을 압송하게 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앞부분의 줄거리’의 ‘속세의 부귀공명을 원하다가 육관 대사의 명으로 지옥으로 추방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제 멧모르고 연화봉 돌다리에서 선녀들을 만나 한 때 마음을 누르지 못하여 사부에게 죄를 얻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성진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에서 선녀들을 만나 한때 마음을 누르지 못해 사부, 즉 육관 대사에 죄를 얻었다고 하였으므로 육관 대사는 성진의 세속적 욕망을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나)를 통해 염라대왕은 저승사자 아홉 명을 정하여 팔선녀와 성진 아홉 명을 인간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였고, (다)에서 ‘아홉 사람은 사발팔방으로 흩어졌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염라대왕은 팔선녀가 인간 세상에 함께 가도록 명한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가게 명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염라대왕이 팔선녀에게 지옥에 온 이유를 묻자 팔선녀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다)의 “여기는 당나라 회남도(淮南道) 수주현(壽州縣)이고~이 집 아들이 되었으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내 지금 세상에 태어날 모양인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누가 내 사리를 수습할꼬.’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A]의 ‘대사께서 저희가 스님의~위 부인께 고해 대왕께 오게 했습니다.’를 통해 팔선녀가 세속의 부귀영화를 꿈꾼 것을 위 부인이 알게 되어 염라대왕 앞으로 오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6 성진은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데, (다)의 ‘깊고 푸른 산이 사방을~초가집이 십여 채 있었다.’에서 성진이 도달한 인간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온 성진의 상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07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와 내면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꿈과 현실, 즉 내부와 외부 이야기 모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지 않다.

08 (라)에서 ‘저승사자는 성진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지만, 성진은 의심스러워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성진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방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저승사자는 성진에게 방 안에 들어가도록 재촉하고, 뒤에서 성진을 미는 등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② (라)에서 양 처사가 아들의 골격이 빼어난 것을 보고 “이 아이는 반드시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람이라,”라고 말한 데서 아들에게서 비범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의 ‘점점 자라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옛날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의 ‘얼굴은 매끈한 옥 같고 눈은 샛별처럼 빛났다. 기세가 빼어나고 지혜가 깊어 우뚝한 대인군자의 품모가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라)는 성진이 소유로 태어나는 부분이다. ㉠에서 ‘단지 으앙 으앙 하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라고 한 것은 정진은 아직 성진이나 육체는 환생한 아이의 몸이기 때문이다.

10 소유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장양이 신선 적송자를 따랐던 고사를 활용하여 불도에 귀의하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마)의 “~지금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소?”에서 의문형을 활용하여 영웅호걸의 부귀공명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는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바)에서 유도(儒道), 선도(仙道), 불도(佛道)를 비교하며 이중에 불도가 가장 높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에서 진시황, 한나라 무제, 현종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11 소유가 죽음을 운명을 받아들이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소유는 부귀공명의 허무함과 인생무상을 깨닫고, 처

침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불도에 귀의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통소에는 이러한 소유의 마음이 담겨 있다.

- 12 '아방궁', '무릉', '화청궁'은 모두 과거 황제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화려한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공간이므로,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소재들이다.
- 13 (사)의 “어떤 사람이 감히 이곳까지 오는고?”, “사부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로 보아 소유는 불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14 [A]에서는 30cm가 넘는 하얀 눈썹과 푸른 눈이라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외양 묘사를 통해 불승이 비범한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얼굴과 행동이 범상치 않았다.’라고 하며 비범함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 15 ㉠은 성진의 꿈속의 인물인 소유가 꿈에 해당한다.
- 16 ㉠은 부귀공명을 따르는 인간 세상의 삶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꿈 밖 현실의 스승(육관 대사)을 알아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17 ㉡는 도술로써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으로, 이후 성진은 자신의 본모습을 깨닫게 되고, 소유로서 살던 삶이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는 전기적 요소로 성진의 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18 [B]는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소유로서 살던 꿈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면서 회상하는 부분이므로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9 (카)에서 팔선녀가 위 부인에게 이전의 일들을 사죄하고 하직 인사를 하였다고 했을 뿐 팔선녀의 불문 귀의에 대한 위 부인의 생각은 드러나 있지 않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 ㉠은 성진이 인간 세상과 꿈이 같은 것임을 모르고 인간 세상을 꿈으로만 여기는 것에 대한 육관 대사의 부정적 평가가 담겨 있고, ㉡에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성진에 대한 육관 대사의 탄식이 담겨 있다.
- 21 ㉢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성진에 대한 육관 대사의 질책이 담긴 것이므로 현실과 꿈을 구별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일깨우기 위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 22 (타)의 ‘이후 성진은 연화 도량에서~마침내 모두 극락으로 갔다.’에서는 성진과 팔선녀의 행적에 대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아아, 기이하다.’라고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 23 팔선녀가 얼굴의 연지와 분을 씻고 몸에 두른 비단옷을 벗은 것은 인간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즉 세속적 욕망을 끊

어내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연지와 분, 비단옷은 일상적 소재이지만, 종교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② 팔선녀가 깨달음을 얻은 후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행동이므로 의지가 좌절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육관 대사가 가르침을 거절한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문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세속적 욕망을 끊어내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는 행동이므로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4 ㉠은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 인생무상에 대한 계승으로,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한 깨달음이므로 세상의 진리는 없고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56~57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⑤ 06 ③

01 「구운몽」은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부귀공명의 허무함 극복을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로 전개하고 있는 소설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인 인물들이며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02 성진이 꿈에서 소유로서 인간 세상을 살아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깨는 것으로 보아 성진은 참된 본성으로 돌아오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3 「구운몽」에서 ‘꿈’은 성진의 세속적 욕망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성진이 삶의 허무함, 인간 세상의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성진이 현실에서 한 업적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교훈적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04 성진은 현실과 꿈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인식했지만 육관 대사의 현실과 꿈은 무의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 ⑤에서 현실에서의 잠재적 욕망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육관 대사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구운몽」은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욕망은 구름처럼 한순간의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구운몽」의 주제를 반영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신나게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소설의 주제에 어긋난다.

②, ③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소설의 주제와 상관이 없다.

④ 임신양명도 세속적 욕망에 해당하므로 이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은 소설의 주제와 상관이 없다.

06 성진과 조신은 모두 인간 세상의 세속적 욕망에 대한 인생무상, 허무함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일이라는 뜻의 '일장춘몽'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비몽사몽(非夢似夢)'은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②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견원지간(犬猿之間)'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르는 말이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58~61쪽

01 ③ **02** ③ **03** ⑤ **04** 불승이 지팡이로 난간을 치자 주변 공간에 비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구름이 걷히자 불승과 처첩이 사라지면서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주로 나타나는 비현실성(전기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⑤ **06** ① **07** ⑤ **08** ② **09** "이는 필시 사부께서 내 생각이 잘못임을 아시고 인간 세상에서 사는 꿈을 꾸게 해, 내게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한 것이리라."로 보아, 육관 대사는 성진이 속세를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며, 꿈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0** ⑤ **11** ④

01 이 글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육관 대사가 성진에게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떻더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성진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성진이 자신과 소유의 삶을 분별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소유는 성진이 환생한 인물로 결국 동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성진이 꿈속에서 소유의 삶을 통해 인간 세상의 세속적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속세에서 잠깐 노닐다 결국 불법을 통해 참된 본성을 깨닫는다'는 불교적 가치관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성진은 꿈속에서 소유의 삶을 경험하고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여 참된 삶을 산다.

04 불승이 지팡이로 난간을 치자 구름이 사방에 피어 올라 누대를 감싸고, 구름이 걷히면서 불승과 처첩이 사라지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소, 즉 전기적 요소를 통해 성진이 꿈에서 깨는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05 성진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사는 꿈을 꾸는 것에 대한 반성과

이를 통한 깨달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지 이전 세계와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 대한 실망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다.

06 성진이 하룻밤 꿈으로 자신을 깨닫게 해 준 대사에게 감사를 표하자, 대사는 장자지몽의 이야기를 통해 꿈과 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성진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으며, 대사는 꿈과 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07 '대사가 성진의 계행이 완전함을 보고'를 통해 육관 대사가 성진이 불도의 계율을 잘 지켜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위 부인이 불문에 귀의하려는 팔선녀와 같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착하고 착하다. 너희 여덟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으리."로 보아, 육관 대사는 불도에 정진하기 위해 용모와 태도를 바꾼 팔선녀의 행동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팔선녀는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얼굴의 연지와 분을 씻고 몸에 두른 비단옷을 벗어 버렸다.

④ 성진과 팔선녀는 육관 대사가 설법을 하기 전에 이미 불문에 귀의하기로 마음먹었다.

08 '운(雲)'은 구름처럼 변화하고 덧없는 인생무상(人生無常)과 관련된다.

09 육관 대사는 성진과 팔선녀가 세속을 경험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고, 소유가 꿈속 세계에서 성진의 현실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10 이 글의 '인간 세상에 양씨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장원 급제하여 한림이 된 일, ~아침저녁으로 한가로이 처첩들과 음주와 가무를 즐긴 일'에서 성진은 꿈속 인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그 세월 동안 조신의 가족은 가난으로 유랑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마치 백년 동안의 괴로움을 맞본 것 같아'를 통해 조신은 꿈속 세계에서 가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1 ㉠에서 팔선녀가 연지와 분을 씻는 행동을 통해 세속적 욕망을 끊어내는 의지를, ㉡에서는 『금강경』에 있는 계승을 통해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3) 현대 시의 시선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64쪽

01 ② **02** ③ **03** ④

01 2연의 '파아란 바람'에 색채어가 나타나지만,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니다'라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산문적 진술로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는 우물 속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미움과 연민, 그리움 등의 심리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2연이 6연에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⑤ 우물을 들여다 보는 것과 돌아가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화자의 내면을 부각하고 있다.

02 이 시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내적 갈등을 겪다가 마지막 연에서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현실의 자아와 화해하고 있으므로 갈등과 대립 속에 화해에 실패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비극적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담겨 있다.

② 화자는 우물에 비친 '사나이'에 대해 미움, 가엾음(연민), 그리움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④ 우물 속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압축한 현실 속 화자의 처지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⑤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하려는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03 자신을 성찰하는 반성적 자아는 화자에 해당한다. '사나이'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 소재로, 화자가 성찰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에 해당한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65쪽

01 ⑤ 02 ② 03 ⑤

01 화자가 다시 우물을 찾아가 사나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자아를 성찰하며 자아에 대한 미움과 연민이 반복되는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이므로 자기 부정을 초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2 이 시의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 삶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④ 우물은 화자가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며, 화자의 내면을 투영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③, ⑤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자아 성찰을 의미한다. 이때 우물을 반복하여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에 연민

을 느끼고, 미워했다가 다시 그리워하는 행위는 그만큼 화자의 내적 갈등이 치열함을 보여 준다.

03 「저문 강에 삼을 씻고」에서 '돌아가야 한다'에는 가난한(암울한) 현실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66~67쪽

01 ② 02 화자는 무언가를 비추어 주는 우물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

03 ①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① 09 ③

01 이 시는 경어체의 평서문으로 행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아란'은 '파란'에 의도적으로 음을 추가하여 시어를 변형한 시적 허용이다.

③ 2연이 6연에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④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돌아갔다 다시 우물로 오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⑤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물 안 풍경과 화자가 부끄럽고 가여워하는 사나이의 상황이 대조되고 있다.

02 우물은 거울과 같이 사물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물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03 이 시의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으며, 현실적 자아의 모습에 대해 미움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04 이 시에서 화자는 '추억처럼'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현재의 자신과 화해를 하고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부정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마지막 연으로 보아 화자는 우물로 돌아와서 과거 순수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현재의 자신, 현실적 자아와 화해하고 있다.

06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는 시인이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하려는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끄럽고 나약한 사나이에게 미움과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다시 미워했다가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자기혐오와 자기 연민으로 갈등하

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나이’를 청자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나이’는 화자 자신이자 성찰의 대상이다.

② 우물 속의 풍경이 아름다운 이상 세계와 대비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는 ‘사나이’를 현실에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사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⑤ ‘사나이’는 시인이 경외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사나이’는 성찰의 대상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 자신이다.

07 ㉞에서 ‘사나이’는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우물 속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는 것은 자기 성찰 결과 반성적 자아인 화자가 현실적 자아와 화해를 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08 ㉠ ‘가만히’는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로,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 즉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에 조심스럽고 신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 ‘어쩐지’는 ‘어찌 된 까닭인지’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사나이를 미워하면서도 내적 갈등을 하는 것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화자가 우물로 ‘도로’ 가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 화자의 내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 ‘도로’는 화자가 성찰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도로’가 화자의 반복되는 행위가 무의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 ‘그대로’는 화자가 부끄러워하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⑤ 화자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부끄러운 현실적 자아를 인정하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 ‘다시’가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이 시에는 경어체의 평서형으로 고백적 어조가 드러나지만, <보기>에는 짧고 강인한 남성적 어조로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을 보여 주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 화자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만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시와 <보기>에는 모두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는 것에서 순수했던 과거의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과거 지향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없고, <보기>에도 과거 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보기>에는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에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이 시에는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4) 현대 소설의 빛깔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70~76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①	07 ②	08 ⑤
09 ②	10 ②	11 ⑤	12 ⑤	13 ③	14 ⑤	15 ②	16 ②
17 ②	18 ②	19 ③	20 ①	21 ⑤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작품 안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02 ‘나’는 방 안에 있는 희미한 얼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낙서를 하게 된 연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만 희미한 얼룩을 지우지 못해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머리맡에 놓아둔 헤드폰을 끌어다 쓰고 음악을 들으며 한참 동안 그대로 좀 더 누워 있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과 ‘그리고 컷가에는 지(G)-그리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나’는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벽에 희미한 얼룩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며 낙서의 형태와 낙서를 한 이유 등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 ‘나’는 지(G)-그리핀의 노래와 목소리를 들으면 설레고 벽차고 편안하다고 하였을 뿐, 그의 목소리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04 이 글에서는 낙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인과 관계 없이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생각나는 대로 서술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한다.

05 ‘나’는 방의 전 주인인 ‘그’에 대해 알게 된 여러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이 글에서 ‘날개’는 방의 전 주인이나 ‘나’가 추구하는 이상을 상상하게 하며, ‘거울’ 또한 거울로 보이는 날개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꿈과 이상의 세계로 이끄는 매개물로 작용하고 있다.

07 ‘나’가 채영이 떨어뜨린 공을 주워 채영에게 건네고 있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골대에 농구공을 넣는 행동을 반복하며 계속 실패하는 채영을 관찰하다가 ‘달려가 등 뒤에서 그 애의 허리를 붙잡아 안고 힘껏 위로 들어올려 주고 있다.’

08 '농구대는 남학생 키에~잘못된 게 아니다.'에서 '나'는 농구대가 채영의 키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공을 넣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채영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는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09 채영이 '여기 있으면 네가 혹시 올까 했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운동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채영이 '나'를 돌아보며 '강연우'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다.

③, ④ 채영이 농구공을 골대에 넣기 위해 반복적으로 공을 던지고 있으나 농구를 잘하기 위해 공을 계속해서 던진 것이 아니다. 또한 공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화를 내는 부분도 제시되지 않았다.

⑤ '여기 있으면 네가 혹시 올까 했어.'를 통해 만나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마)에서는 '나'와 채영이 비행기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고, 대화의 중간중간에 '나'의 독백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이 글에서 '나'와 채영은 갈등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인물과의 갈등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날짜 변경선이 다른 인물과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날짜 변경선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나'의 과거의 환상적 상상을 떠올리는 계기이자 채영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이다.

12 ㉠에서 '나'는 채영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열 시간 넘게 비행하는 비행기를 함께 타고 싶다고 했을 뿐, 채영에게 어떤 심리적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 있으므로, 채영을 위로해 주고 싶은 기대를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말썽을 피우면 귀찮은 마음이 들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날 싫어하거든."이나 "내가 자랑스럽지 않게 된 다음부터 우리 아빠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 등에서 채영이 타인의 기준, 특히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준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신민아 씨라면, 뭐, 나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어른은 아니니까. 우리 비겼네? 라고 했을까.'로 보아 '나'는 엄마를 '신민아 씨'라고 부르고, 엄마는 '나'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의 엄마가 다른 부모보다 엄격하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럴 때 태수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진이라서? 라고 말해 채영을 웃게 만들었을까.'로 보아 태수는 친구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가볍게 반응했을 것이다.

④ 타인의 기준을 의식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채영으로,

'나'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⑤ "내가 자랑스럽지 않게 된 다음부터 우리 아빠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로 보아 채영의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자랑스럽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14 채영은 아버지가 강요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부담과 불안감에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꿈을 꾸다. 따라서 채영의 '꿈'은 아버지가 강요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부담과 불안감, 강박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5 ㉠과 ㉡은 모두 채영이 '나'에게 한 말로 ㉠은 '나'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채영의 우호적 감정이 드러나 있다. ㉡은 '나'에 대한 평가이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채영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이로 보아 ㉠과 ㉡은 모두 상대인 '나'에 대한 평가이자 우호적 감정이 담긴 말이다.

16 '나'는 무얼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막연하게 어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어른에 대해 동경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로 보아 채영은 자신에게 정해진 기준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와 같은 존재로 어른을 인식하며,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뭔가가 된다면 그건 뭐, 어른이긴 하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에는 타인의 기준에 부담감을 느끼는 채영이 '나'에 대해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느낀 생각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은 타인의 기준에 얽매는 것을 의미한다.

18 평소에도 '별로'나 '대충'과 같은 말을 자주 한다는 말에서 다소 시큰둥하고 무심한 면이 있는 '나'의 성격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은 무얼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③ ㉡은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에서 벗어나 고요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상상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

④ ㉢에서 채영은 '나'의 상상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는데 이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불안감을 느끼는 '나'에 대한 공감이자, 위로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상상의 공간인 '세상 끝에 있는 우주 정거장'으로

가 보자는 것은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자는 의미이다.

- 19 이 글에는 타인의 기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지(G)-그리핀'의 노래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20 [A]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나'와 채영이 스탠드를 뛰어 내려와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본 하늘로 현실의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② '검은, 하얀' 등의 색채와 구름의 움직임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바람이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나'가 불러 준 노래가 현실의 불안감에 힘겨워하던 채영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 세상을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A]의 '하얀 구름이 깃털처럼 깔려 있다.', '뒤집힌 검은 양탄자 같고', [B]의 '노래방의 조명등처럼', '봉오리를 터뜨리는 봄꽃처럼' 등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⑤ 바람 부는 운동장의 밤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21 ㉠은 '레츠 고 스페이스', '위 고나 플라이 하이'를 가리킨다. 이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을 의식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정체성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77~78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② 05 ④ 06 ③

- 01 이 글에서 지(G)-그리핀의 노래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인물들 간에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 02 채영은 연우를 기다리고, 함께라면 멀리까지 가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며 믿고 있다.
- 03 채영은 자신에게 정해진 기준을 강요했던 기성세대, 특히 아버지에게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채영이 어른을 자신만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범으로 여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4 이 글에 삽입된 노래는 '나'의 생각이나 심리를 대변해 주면서 '나'와 채영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고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 주지는 않는다.
- 05 <보기>에 제시된 작가의 말을 고려할 때 이 글은 고독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인 채로 괜찮다'는 위로와 함

께 '나는 나다.'라는 자신의 고유성, 즉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 06 작가와 대담을 통한 문학 비평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전에도 이루어졌던 문학 활동이므로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79~81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날개'는 현실을 벗어나 꿈과 이상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한다. 06 ② 07 '우주'는 지구에서 벗어난 세계로, 현실의 기준이나 부담, 혹은 목표가 없는 불안함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다. 즉 자신들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상상의 공간이자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인물들의 소망을 상징한다. 08 ② 09 ①

- 01 '깨어난다', '두드린다', '편안하다', '본다' 등과 같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주인공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0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을 통해 '나'는 그와 친분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아침마다 엠펬스리(MP3) 알람으로 잠에서 깨어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벽에 희미한 얼룩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설레고 벅차면서도 편안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위치에 그리려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3 '나'는 벽에 그려진 낙서가 새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울 앞에 까치발을 들고 서서 자신의 몸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을 상상하며, 방의 전 주인도 거울 속에 날개를 펼친 자신을 만들어 보며 우주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는 '날개'와 함께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을 벗어나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타인을 이해하는 기능을 하므로 인물에 대한 경계는 엿볼 수 없다.
- 04 ㉠에서는 '찬물처럼', '서늘한 깃털처럼' 등과 같이 아침에 일어난 '나'의 상황을 비유적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방의 전 주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추측하는 것들 등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은 '나'의 상황을 비유를 통해 감각적으로, ㉡은 인물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05 이 글에서 '나'는 날개를 펼치는 상상을 하면서 방의 전 주인도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상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날개'는 현실을 벗어나 자신만의 꿈과 이상의

세계로 '나'를 이끄는 매개물이면서 동시에 방의 전 주인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에 대해 이해하려는 '나'의 내면 의식을 보여 준다.

06 인터넷 소설이 아닌 일반 소설에서도 사건을 시간의 역전적 구성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인터넷 소설에서는 작가와 독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작가가 작품을 올리면 독자들이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작가가 그것을 바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소설에는 텍스트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여 독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07 <보기>에서 '나'와 채영은 현실에 부담감을 느끼는 청소년들로서 현실의 기준과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성을 찾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인물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상상 속 '우주'는 현실의 기준이나 부담, 혹은 무엇이 될지에 대한 목표가 없는 불안함 등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곳이다.

08 '나'는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들만의 세계, 즉 우주로 가고 싶어 하는 채영의 마음에 공감하고 지(G)-그리핀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따라서 '나'가 채영의 손을 잡는 것은 채영과 함께 '위 고나 플라이 하이', 즉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지 채영의 선택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09 바람을 어떤 변화라고 본다면, 바람이 이끄는 대로 어디론가 서둘러 가고 있는 구름은 기존의 규범이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아가려고 변화의 기운을 따라 움직이는 '나'와 채영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82~89쪽

- 01 ③ 02 ④ 03 ④ 04 ③ 05 해설 참조 06 해설 참조 07 ④
 08 ② 09 ② 10 ② 11 ④ 12 해설 참조 13 해설 참조 14 ⑤
 15 ⑤ 16 ③ 17 ⑤ 18 ③ 19 ① 20 해설 참조 21 해설 참조
 22 ⑤ 23 ③ 24 ② 25 ④ 26 해설 참조 27 해설 참조

01 (다)는 약자와 강자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두터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풍자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을 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한 서정시로, 집단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주술적 성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는 평시조이고 (다)는 사설시조로, 모두 초장, 중장, 종장 세 개의 의미 단락을 구성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는 향가로 규칙적인 음보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시조로 4음보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나)와 (라) 모두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을 뿐 상상의 세계를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02 (다)에서 '두터비'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로, 힘없는 백성인 '파리'를 물고 '갯년산'을 바라보다가 중앙 고위 관리인 '백송골'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두힘 아래로 풀덕 뛰어내리고 있다. 따라서 '갯년산'은 '두터비'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두터비'가 '갯년산'을 바라보는 것이 권력 지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3 '가는 곳 모르온저'는 죽은 누이가 떠나간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누이(㉠)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누이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뭇다 이르고 어찌 감니까'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다.

② '이에 저에 떨어질 잎'은 세상을 떠난 누이를 빗댄 표현으로,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함축되어 있다.

③ '한 가지에 나고'는 누이와 화자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즉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⑤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에는 죽은 누이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도를 닦아 미타찰에 이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04 '풀덕 뛰어'의 주체는 두꺼비로, '풀덕'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두터비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1등급 서술형

05 **|예시 답|** ㉡에 해당하는 시구는 '강산(江山)은 드릴 뉘 업스니 돌너 두고 보리라.'인데, 강과 산이라는 자연 공간을 병풍과 같은 물리적 대상으로 변용하였기 때문이다. ㉠에 해당하는 시구는 (가)의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인데, 현실과 다른 종교적 차원의 공간인 '미타찰'을 누이와의 재회의 공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 ㉡ 각각에 해당하는 시구와 그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
	㉠, ㉡ 중 해당하는 시구와 그 이유를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3
	㉠, ㉡에 각각 해당하는 시구는 제시하였으나 그 이유를 미흡하게 제시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06 | 예시 답 | (다)와 같은 사설시조는 중장의 길이가 2구 이상 늘어나 형식적인 제약이 약화되었고, 작자층이 사대부에서 서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연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재로 삶의 애환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다루었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에서 중장이 2구 이상 늘어나 형식이 자유로워졌고, 작자층은 주로 서민으로 작자층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평시조에 비해 내용도 자연이나 사랑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주로 다루어 삶의 애환이나 현실 비판과 풍자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사설시조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사설시조의 특징을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7 이 글은 꿈과 현실이 교차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지는 않다. 즉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불승이 지팡이를 이용해 도술을 부리는 장면, 구름이 걷히면서 불승과 처첩이 모두 사라지는 등 비현실적(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꿈속 소유의 삶에서 현실 세계의 성진으로서의 삶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돌이켜 생각하니, 처음에 사부의~음주와 가무를 즐긴 일 등이 있었다.’에서 꿈속 소유로서의 삶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머리를 만져 보니 새로 깎은 듯 남은 털이 까칠까칠한데 백팔 염주가 목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에서 성진의 외양 변화를 묘사하여 꿈속의 소유에서 현실 세계의 성진으로 바뀐 상황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전기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취한 것도 같고 꿈꾸는 것도 같았다.’, ‘정신이 황홀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두 일장춘몽이었다.’ 등과 같이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8 이 글에서 불승은 소유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했소?”라고 질책하고 있지만, 외양을 놀리고 있지는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불승이 ‘꿈속에서 한 번 본 것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함께 살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자, 소유는 열여섯 살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근거로 들어 십 년 동안의 인연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③ “상공은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구려.”와 “사부께서는 소유를 크게 깨우치실 수 있겠습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사부께서는 어찌하여 바른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환술(幻術)로 놀리십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성진의 이름에는 인생무상의 뜻이 담겨 있지 않다. 성진의 이름은 부처님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으며, 사부는 성진에게 인간 세상에서의 욕망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함으로써 성진이 부처님의 세계로 되돌아오게 한 것이다.

10 ㉠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참고할 때, 대사는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고, 성진과 양소유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통해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자와 나비 이야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1 ㉠에서 ‘일장춘몽(一場春夢)’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성진이 양소유로서 부귀공명을 누리며 살아온 삶이 모두 꿈속의 일이었음을 깨닫고 인생무상을 느끼는 부분이다.

| 오답 풀이 | ① ㉠는 성진의 꿈속 세계에서 소유가 꿈 꿈이다. ② 열여섯에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 계속 벼슬에 있었으므로 입신양명의 삶을 보여 준다.

③ ㉡는 불승이 환술을 부려 성진을 꿈에서 깨게 하는 부분으로, 소유의 삶에서 성진의 삶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기적인 요소로 성진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아니므로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을 뿐 운명의 가혹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1등급 서논술형

12 | 예시 답 |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여 2처 6첩과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결국 인생무상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다짐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꿈에서의 주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
	꿈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13 | 예시 답 | ‘꿈’은 성진이 자신이 추구하는 세속적 욕망을 양소유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세속적 삶의 허망함(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인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던 성진은 꿈에서 양소유로 환생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인생무상을 느끼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불도에 정진한다. 따라서 ‘꿈’은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면서 성진이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인과성을 높이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꿈의 서사적 기능을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꿈의 서사적 기능을 <조건> 중 하나만 반영하여 서술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4 이 시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을’이라는 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나이’의 모습을 대비시켜 자아 성찰하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습니다’라는 경어체로 ‘사나이’에 대한 정서를 고백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우물 속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④ ‘추억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과거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5 <보기>는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를 읽고 독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⑤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작품의 내재적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하였다.

③ 작품을 창작한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였다.

④ 작품에 반영된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하였다.

16 이 시의 ‘우물’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객관화하여 성찰할 수 있는 매개체이므로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보기>에서 ‘물’은 화자가 가난하고 고된 노동자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⑤ 이 시의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 현실적 자아와 화해를 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현실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보기>에서 ‘물’은 현재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나 공동체적 자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없다.

④ <보기>는 자연 파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의 삶에 대한 비애를 다루고 있다.

17 이 시에서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다.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가 가여워지고, 다시 가서 들여다보니 또 미워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리워진다. 따라서 ‘돌아가다 생각하니’는 우물 속 자신의 모습, 즉 객관화된 자아에 대한 연민과 미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화

자의 내적 갈등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18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그 속의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고 있을 뿐 ‘사나이’와 대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자가 사나이의 대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은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등급 서술형

20 **| 예시 답 |** 「자화상」은 일제 강점기 암울한 현실에서 지식인의 사명감과 내적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진실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창작 의도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제시된 형식으로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창작 의도를 제시된 형식으로 서술하였으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술형

21 **| 예시 답 |** ㉠은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시대적 책임을 외면하는 지식인인 작가 자신의 모습을, ㉡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상 세계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을 지녔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 시에서 ‘사나이’는 화자가 성찰하는 대상인데, ㉢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를, ㉣는 화자가 추억하고 있는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사나이’가 상징하는 바를 <보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와 ㉣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보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나이’가 상징하는 바를 ㉡와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2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작품 안의 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나’의 시각에서 자신과 채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3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날 싫어하거든.”이나 “내가 자랑스럽지 않게 된 다음부터 우리 아빠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 등으로 보아 채영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신민이 씨라면, 뭐, 나도 남에게 사랑할 만한 어른은 아니니까. 우리 비겼네?’ 라고

했을까.'로 보아 자식을 구속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나'의 엄마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채영과 함께 그 비행기를 꼭 타고 싶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날 싫어하거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내가 고민이란 걸 한다면 실은 바로 그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냥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믿는 거잖아."라는 채영의 말에 '나가'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가슴 한 칸이 빠근해진다.'라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채영의 말에 '나'는 시간이 멈춘 장소 같은 게 있다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러한 공간으로 우주 정거장을 지목하였으므로, 우주 정거장은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보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25 [A]는 '나'가 과거 지리 시간에 처음 알게 된 날짜 변경선과 관련된 상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B]는 과거 자신이 했던 '별로', '대충'이라고 얼버무렸을 말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등급 서술형

26 | 예시 답 | 채영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꿈을 꾸는데, 이는 채영이 아버지가 강요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부담과 불안감, 현실에서 느끼는 강박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채영이 꾸는 '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채영이 꾸는 '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지만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술형

27 | 예시 답 | 채영은 어른을 자신의 기준에 얽매어 살아가는 존재(기성세대)로 생각하며, 어른들이 강요하는 기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부담(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채영의 심리를 '어른'의 의미와 감정 단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채영의 심리를 서술하였지만 '어른'의 의미나 감정 단어의 사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3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소통

(1) 함께 만족하는 협상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94~100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⑤
 09 ④ 10 ⑤ 11 ② 12 ⑤ 13 ① 14 ㉠ 동아리, ㉡ 주민
 15 ② 16 ⑤ 17 ④ 18 ② 19 ② 20 ④

01 협상은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이견의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의사소통이다.

| 오답 풀이 | ② 논리적 입증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토론과 같은 설득 담화이다.

③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해를 넓히는 화법은 발표와 같은 설명 담화이다.

④ 정서적 공감을 목적으로 상황을 교류하는 것은 주로 대화이다.

⑤ 의견 교환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토의이다.

02 이 협상은 풀빛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학교 강당 공사 때문에 연극 연습과 공연을 진행할 장소를 빌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하게 되었다.

03 다빛아파트 주민 대표는 풀빛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요청한 소극장 대여 문제를 결정하려면 아파트 주민들과 논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 공연 장소와 연습 장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주민 대표는 문화 센터 소극장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였다.

②, ③ 주민 대표는 문화 센터 소극장을 학생들에게 빌려줄 경우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다.

⑤ 주민 대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동아리 학생들에게 대여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04 협상을 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작하기 단계에 드러나 있지만, 협상에 앞서 해결할 과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문화 센터 소극장의 대여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알 수 있다.

②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이 학교 강당의 지붕 공사로 연극 공연과 연습 장소를 빌려야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는 다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로, 지금까지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

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민 대표의 말을 통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④ 아파트 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주민 대표의 말을 통해 갈등 조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05 주민 대표는 ㉠으로 인해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지, ㉠으로 인해 ㉡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며, 동아리 대표가 여기에 공감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동아리 대표는 주민 문화 센터의 소극장을 빌리고자 협상을 하게 되었다.

② 지금까지 문화 센터 시설을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었기에 주민 대표가 동아리 대표의 요청을 수락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③ 주민 대표는 협상을 통해 소극장 대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고자 한다.

④ 주민 대표는 소극장을 동아리 학생들에게 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민 측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6 주민 대표는 다빛아파트의 주민 문화 센터가 다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며, 지금까지 문화 센터 시설을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아리 대표가 ㉢처럼 말한 이유는, 학교 학생들 중에는 다빛아파트 주민이 많고, 학교 동아리가 외부 기관만은 아니라는 것을 통해 주민 대표의 주장을 약화하기 위해서이다.

07 주민 대표는 주민들의 연극 관람 외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문화 센터의 노인 학교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을 동아리 측이 수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동아리 대표는 주민 측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으로 주민들의 공연 관람을 제시하였다.

② 주민 측은 소극장 대여로 추가적인 관리 비용과 주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주민 대표는 동아리 측에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④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주민 대표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동아리 측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08 [A]에서 주민 대표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동아리 학생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양보를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우호적인 자세로 소통하였다.

|오답 풀이| ①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09 동아리 대표는 아파트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에 동아리 학생

들이 도움을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소극장을 빌려주겠다는 주민 대표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10 주민 대표는 문화 센터 관리 직원의 퇴근 시간을 언급하며 동아리 측이 제안한 내용의 수용 범위를 좁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의 수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동아리 측은 연습의 최종 단계에서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② 주민 대표는 문화 센터 관리 직원의 퇴근 시간을 이유로 들며 동아리 측이 요구한 ㉣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동아리 측은 연습 시간을 줄인 양보안을 마련하여 ㉣를 제시하였다.

④ 동아리 측은 ㉣를 양보하면서 공연 전날은 9시까지 연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민 측에 요구하였다.

11 주민 측에서 공연 후 소극장 안팎을 동아리 측에서 청소해 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타협을 통해 무대 정리와 무대 주변 청소만 동아리 학생들이 하고, 객석 청소와 문화 센터 주변 청소는 주민 측에서 하기로 조정하였다.

12 조정하기 단계는 협상 참여자들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가는 단계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시작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②, ④ 해결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13 동아리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동아리 대표로서 협상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연극 공연의 일정 및 시간과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동아리 측이 그 안을 수정한 양보안을 제시하고 주민 측이 그 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15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연극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을 추가하기로 하였지만, 평일 저녁에는 학생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평일 연극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더 많은 주민들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토요일 공연 일정의 추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③ 동아리 측에서는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 지원으로 대본 작성과 연기 기초 훈련을 돕기로 하였다.

④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연극 활동 지원을 위해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하기로 하였다.

⑤ 주민 측에서는 동아리 측에게 소극장을 대여하고 공연 관람 및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에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16 [A]와 [B]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대의 요구 사항을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하여 상대에게 제안하는 발화이다. [A]는 수용하기 어려운 저녁 시간 공연 대신 토요일 추가 공연을 제안한 것이고, [B]는 수용하기 어려운 매주 정기적인 방문 대신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17 ㉔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준 상대측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발화이지, 상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요구 사항을 수정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㉔은 공연 일정과 관련하여 동아리 대표가 제시한 양보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며 고마움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② ㉔은 자신이 질문한 '연기 기초 훈련'에 대한 정보를 동아리 대표가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③ ㉔은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양측의 상황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⑤ ㉔은 앞에서 합의한 협상 결과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발화이다.

18 ②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상대측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로 고마움을 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항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의 대답에 대한 고마움만 드러나 있다.

③ 상대방의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다.

④ 협상 내용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⑤ 상대방에게 제안 내용에 대한 배려와 수용을 부탁하고 있다.

19 이 협상의 합의안에는 공연 전 동아리 학생들의 소극장 이용 기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만, 공연 후 동아리 학생들의 소극장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협상은 상대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하나이다. 따라서 상대측의 공격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협상의 올바른 태도로 보기 어렵다.

01 주민 측은 소극장을 대여할 경우 비용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과 불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면 소극장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 측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어서 소극장의 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주민 측은 소극장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유로 소극장을 외부에 대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④ 학교 학생의 절반가량이 다빛아파트의 주민이라는 것은 동아리 측에서 말한 것이고, 또 그런 이유로 주민 측이 소극장의 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⑤ 문화 센터의 소극장이 연극 공연과 연습을 진행할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 것은 동아리 측이다.

02 주민 대표가 동아리 대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동아리 측의 수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리 측 요구 사항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③ 동아리 대표는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 사항의 이유를 묻는 주민 대표의 질문에 강당 지붕 공사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는 다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로, 지금까지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다.

03 [A]와 [B]는 모두 상대측이 제시한 요구 사항에 응하기 위해 상대측에게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A]는 아파트 주민들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의 제공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B]는 아파트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익의 제공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선결 요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A]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계획을 밝힌 것일 뿐 그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는 않다.

③ [B]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의지를 밝힌 것일 뿐, 그 요구 사항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④ [B]는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상대측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04 <보기>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고려한 말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㉔에서 주민 대표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는 동아리 측의 입장에 공감하여 말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보겠다는 동아리 대표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01~103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④ 05 ④ 06 ③ 07 ③ 08 동아리 대표는 양보와 협력적 태도를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05 동아리 대표는 공연 일주일 전부터 하기로 한 연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밤 9시까지 하기로 한 연습 시간을 7시까지 단축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대표는 배우들이 무대와 조명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주민 측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② 주민 대표는 소극장 관리자의 근무 시간을 근거로 들어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연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동아리 측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③ 주민 대표는 소극장 관리자의 퇴근 시간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⑤ 동아리 대표는 아파트 주민 측의 사정에 따라 애초의 요구 사항을 수정한 조정안(4시부터 7시까지 연습)을 받아들여, 공연 하루 전에는 준비할 것이 많으니 9시까지 연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예외 사항을 제안하였다.

06 ㉞은 자신들이 양보한 요구 사항에 대신하여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용하기로 한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㉞은 소극장 대역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이것을 근거로 삼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다.

② ㉞은 상대측이 우려하고 있는 소음, 쓰레기,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었음을 밝힌 것이다.

④ ㉞은 학생들이 공연 직후에 문화 센터 안팎을 모두 청소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상대측의 양보를 유도하고 있다.

⑤ ㉞은 공연 직후에 문화 센터 안팎을 모두 청소하기 어려운 상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조정한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07 ㉠은 동아리 대표가 협상 참여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상대측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상대측의 불쾌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협상 참여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상대측의 약속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약속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상대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08 ㉡에서 동아리 대표는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대측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양보하기로 하는데, 이는 양보와 협력적인 태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협상 태도이다.

(2) 작문 관습을 고려한 글쓰기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06~108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④ 05 ④ 06 ④ 07 ④ 08 ②
09 ③

01 (가)에서는 ‘풀은 분주하게 키를 키우고 나무는 부지런히 염료를 길어 올린다.’, ‘여러 하천을 불러 모아 넉넉한 품을 연다.’, ‘강과 길은 손이라도 잡을 듯 나란히 흐르다가 이별한 연인인 양 서로를 외면하기도 한다.’ 등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계절이 깊어지는 풍경이나 강이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푸르다’라는 색채어가 있으나 색채어를 대비하거나 대상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④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이 있으나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비유적 표현은 있지만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02 (나)의 첫부분에서 글쓴이는 만경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가 꼭 한번 가 보리라 버르던 문화 예술촌이 있어서 삼레에서 발길을 멈추었음을 알 수 있다.

03 일제 강점기에 삼레는 군산으로 양곡을 나르는 거점 역할을 하였으므로 삼레역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군산으로 양곡을 나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원형 보존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겉모습이 창고 그대로라고 하였다.

② 문화 예술촌으로 탄생하기 전까지 100년 가까이 창고로 쓰였다고 하였다.

③, ④ 삼레는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농사가 잘 되는 탓에 일제 강점기에는 양곡 수탈 기지라는 수모를 겪었고, 군산으로 양곡을 나르는 거점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04 (다)에서 미디어 아트 미술관의 벽과 천장은 원형을 그대로 살렸으며, 벽을 구성한 통나무들의 배열 자체가 예술 작품 같다고 한 것이지, 통나무를 배열하여 만든 예술 작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05 ㉢에서 글쓴이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이 아날로그 같은 옛 창고의 외관과 달리 디지털의 첨단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이 들어 놀랐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②, ⑤ 모두 글쓴이가 보고 감상한 것들이지만 ㉢에서 글쓴이가 놀란 이유는 아니다.

③ 아날로그의 외관과 달리 미술관 내부에는 디지털 예술 작

품이 펼쳐져 있어 놀란 것이지, 아날로그 예술 작품과 디지털 예술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 06 ㉔는 요즘 보기 어려워진 인쇄 장비들을 보다가 100년도 더 돼 보이는 목궤선을 보고 국가유산급으로 가치 있게 느껴졌다는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는 모두 기행문의 요소 중 보고 들은 견문에 해당한다.
- 07 글쓴이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책 공방-책 박물관-목공소-디자인 박물관-문화 카페-카페 밖 등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점을 드러내고 있다.
- 08 (바)에서 디자인 박물관이 젊은 방문객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간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09 (사)에서 글쓴이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남남이 아니며, 시간 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흘러간다고 하였다. 또 고통의 시대가 남긴 유산과 이 시대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증거를 문화 예술촌에서 본다고 했으므로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문화 예술이 시간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09쪽

01 ② 02 ④ 03 ⑤

- 01 이 글은 글쓴이가 완주의 삼례에 있는 문화 예술촌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전달하고 있는 기행문이다.
- 02 글쓴이는 디자인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 카페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이 매혹적이라고 느꼈다.
- 03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되게 표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과 다른 점을 언급했는지는 작문 윤리와 관련해 점검할 항목이 아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10~112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겨 힘들게 농사지은 양곡이 일본으로 수탈되는 현실에 울분을 느꼈을 것이다.
06 ④ 07 ④ 08 ⑤ 09 시간 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어져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고 느꼈다.

- 01 이 글은 삼례의 문화 예술촌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ㄴ). 그리고 삼례의 문화 예술촌이 일제 강점기에 양곡 수탈 기지라는 수모를 겪은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ㄷ). 삼례의 가슴 아픈 역사와 문화

예술촌에서의 여러 전시와 체험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역사와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예상 독자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ㄹ). 하지만 이 글은 글쓴이의 여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행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역순행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ㄱ)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이 글은 글쓴이가 만경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 삼례로 이동하고, 삼례의 문화 예술촌에서 비주얼 미디어 아트 미술관 등 예술촌의 곳곳을 본 자신의 견문과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삼례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계절의 변화를 묘사한 내용은 있으나 그것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바람조차 푸르게 부는 날'이라는 표현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⑤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었지만 자신과 일반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 03 삼례의 문화 예술촌의 건물들은 100년 가까이 창고로 쓰였고, 그 당시의 양곡 창고를 개조해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민 것인데,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겉모습이 창고 그대로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삼례역이 이전한 자리에 막사밭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이 있다고 하였다.

② 일회용 빨대나 링거 줄 같은 쓰레기들이 정크 아트 작품으로 변신했다고 하였다.

③ 미디어 아트 미술관의 벽을 구성한 통나무들의 배열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였다.

⑤ 삼례는 농사가 잘되는 탓에 일제 강점기에는 양곡 수탈 기지로 사용되었고 군산으로 양곡을 나르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 04 미디어 아트 미술관에서 정크 아트 작품들을 차례로 감상한 후에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물속 체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만경강 역시 오랜 시간 사람을 품어 기르고, 사람들은 그 품에서 숱한 이야기를 낳았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문화 예술촌의 창고 건물을 보며 일제 강점기에 양곡 수탈 기지로 사용된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렸다.

③ 삼례의 문화 예술촌에 있는 목재 창고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력 없이 크기만 한 창고라고 하였다.

④ 글쓴이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에 들어서서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을 받을 만큼 디지털의 첨단 예술에 놀라움을 느꼈다.

- 05 삼례역 주변에 살던 당시 주민들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겨 힘들게 농사지은 양곡이 일본으로 수탈되는 현실에 울분

을 느꼈을 것이다.

06 이 글은 글쓴이의 여정과 견문, 감상을 쓴 기행문이므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여정, 견문, 감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여행에서 겪은 일과 감상을 솔직하게 쓴다.

07 글쓴이는 디자인 박물관에서 디자인과 기능, 경제성, 기술 등이 우수한 작품들을 감상했지만, 예술의 실용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08 ㉠에서 글쓴이는 삼례의 문화 예술촌을 둘러보고 봄바람처럼 몸과 마음이 느긋해져 문화 예술촌 주변을 거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긋해진 일상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9 글쓴이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남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시간 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어져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를 강물에 비유해서 문화 예술촌을 보고 난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13~117쪽

-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해설 참조
- 08 해설 참조 09 ⑤ 10 ⑤ 11 ③ 12 ⑤ 13 ⑤ 14 ⑤
- 15 해설 참조

01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토의이다.

| 오답 풀이 | ① 협상을 할 때에는 자신의 요구 사항과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이해와 양보를 구해야 한다.

② 협상은 한쪽의 이익이 한쪽의 손해로 연결되는 상황, 즉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③ 협상에서 타협안의 도출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함으로써 가능하다.

⑤ 협상에서는 자신이 제시하는 방안의 효용성을 설득하여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합의에 이르기가 쉽다.

02 주민 대표는 동아리 측이 매주 정기적으로 꾸준히 연극 활동을 돕기를 바란 것이지, 연기 기초 훈련보다 대본 작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대표는 공연 시간을 정할 때 학생들의 귀가 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 공연은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② 주민 대표는 연기 기초 훈련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동아리 대표에게 그 내용을 문의하였다.

③ 동아리 대표는 공연 준비를 해야 하는 여름 방학보다는 겨울 방학에 시간을 내기가 더 수월하므로 이때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을 돕겠다고 하였다.

⑤ 주민 대표는 평일 낮 시간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우므로 저녁 시간의 공연을 동아리 측에 요청하였다.

03 [A]에 나타난 '동아리 대표'의 협상 전략은 상대측이 제시한 평일 저녁 공연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토요일 오후 공연을 추가하여 상대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주민 대표는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은 평소에 매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양보한 것이 아니다.

05 기사에는 양측의 협상 과정과 협상 결과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독자들이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사 작성 시 고려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협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에 주민 센터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를 통해 독자들은 협상이 개최된 장소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주민 대표가 주민 센터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시설로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함에 상응하는 이익 없이 외부 기관에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자'를 통해 독자들은 합의가 도출되기 전 주민 측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합의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를 통해 독자들은 세부적인 협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⑤ '이 협상은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판이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를 통해 독자들은 협상의 의의와 가치를 환기할 수 있다.

06 주민 대표는 '저희가 생각한 방안과는 좀 거리가 있군요.'라고 말하여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후, 매주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상대측의 요구 사항으로 예상되는 자신의 부담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신이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1등급 서술형

07 **| 예시 답 |** (가) 다음 달 첫째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3회로 진행한다. (목요일, 금요일 오후 1시/토요일 오후 3시) (나) 동

아리 학생들이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을 돕는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 (나)의 협상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가), (나)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08 | 예시 답 | 그렇다. 주민 대표는 학기 중에 시간을 내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자신들의 요구가 좀 무리였던 것 같다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협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주민 대표의 발화에서 점검 항목에 해당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한 경우	5
	점검 항목에 대한 답은 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미흡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9 문화 예술촌의 외관은 1970~80년대까지도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매력 없이 크기만 한 목재 창고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만경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 삼례에 도착하였다.

② 문화 예술촌의 건물들은 100년 가까이 창고로 쓰이다가 창고를 개조해 문화 예술촌으로 탄생한 것이다.

③ 글쓴이는 삼례의 문화 예술촌을 전부터 꼭 한번 가보리라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다.

④ 삼례는 만경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10 이 글에는 글쓴이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풀은 분주하게 키를 키우고 나무는 부지런히 열매를 길어 올린다.’, ‘강과 길은 손이라도 잡을 듯 나란히 흐르다가 이별한 연인인 양 서로를 외면하기도 한다.’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②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만경강의 위치, 길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④ “무슨 문화 예술촌이 이렇게 생겼어?”라는 반응을 직접 인용하여 문화 예술촌의 외관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11 삼례는 일제 강점기에 군산으로 양곡을 나르는 거점 역할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창고의 모습은 임시로 양곡을

보관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삼례의 문화 예술촌은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겉모습이 창고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원형을 보전하려는 이유가 양곡 수탈의 과거를 기억하려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다.

12 (나)에서 글쓴이는 목공소 내부가 깔끔하고 조용해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품격이 뛰어나다고 하였는데, 통유리를 통해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은 문화 카페이다.

13 (라)에서 글쓴이는 카페에서 나와 창고 건물들과 삼례 성당, 마당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삼례 성당과 마당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문화 카페가 아니라 문화 카페 밖이다.

14 <보기 1>은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으로 작품 안의 요소와 작품 밖의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 2>는 작품 밖의 요소인 시인이라는 작가의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 안의 요소인 시적인 문장 표현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상한 것은 짙은 나무 향이 우르르 달려 나온다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시적인 문장에 주목하고 있는 ㉠이다.

1등급 서·논술형

15 | 예시 답 | (가): 문화 예술촌의 동과 동 사이를 나비처럼 옮겨 다니며 문화 예술의 향기를 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느꼈다.

(나): 짙은 나무 향을 맡으니 오래 그리워하던 고향 소식을 들은 듯 왈칵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가)에서는 ‘나비처럼’이라는 직유법을 활용해 문화 예술의 향기를 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짙은 나무 향을 맡은 느낌을 ‘고향 소식을 들은 듯’이 반갑다고 직유법을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직유법이 사용된 구절을 (가)와 (나)에서 모두 찾아 글쓴이의 감상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직유법이 사용된 구절을 (가)와 (나)에서 모두 찾았지만 글쓴이의 감상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직유법이 사용된 구절을 (가)와 (나) 중에서 하나만 찾아 글쓴이의 감상을 적은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4 우리 언어생활의 변화와 발전

(1) 국어가 걸어온 길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21~122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① 05 ③ 06 ②

01 중세 국어에도 ‘말쌈미(말쌈+이)’, ‘홍배(바+ㅣ)’ 등에 주격 조사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환경에 따라 ‘이’, ‘ㅣ’나, 주어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형태의 세 가지로 사용되었다.

02 ‘뿌메’는 ‘쁘다’의 어간 ‘쁘-’에 명사형 어미 ‘-음’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으로, 이어적기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단어의 첫머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연속되는 것을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뿌메’에서는 ‘ㅃ’의 어두 자음군이 쓰였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 옆에 방점을 찍어 성조(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뿌·메’에는 방점이 한 개씩 있는데 이는 거성(높은 소리)에 해당한다.

⑤ 어간 ‘쁘-’가 음성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어미도 음성으로 시작하는 ‘-음’이 쓰였다.

03 ㉠의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나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쓰인다.

|오답 풀이| ① ㉠의 ‘말쌈’은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의 의미 없이 일반적인 말을 의미하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쓰인다.

② ㉡의 ‘어린’은 ‘어리다’가 활용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④ ㉢의 ‘하니’는 ‘하다’가 활용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많다.’라는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이른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⑤ ㉣의 ‘어옛비’는 ‘어옛브다’가 활용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하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04 (나)에서는 하늘의 명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금나라 태조의 고사처럼 태조 이성계도 하늘이 도와 말을 탄 채로 성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건국이 천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용비어천가」는 조선 개국의 당위성을 천명하기 위해 조선 개국의 창업이나 왕업, 개국 문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5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연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에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의 ‘뿌’에는 같은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인 각자 병서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원순 모음화란 입술소리 ‘ㅁ, ㅂ, ㅍ’ 뒤에서 ‘ㄷ’가 원순 모음 ‘ㄴ’로 변하는 현상인데, 중세 국어에서는 ㉠ ‘말’처럼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다가 후대에 적용되어 ‘물’로 바뀌게 된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 ‘하닐히(하닐+이)’와 같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인 ‘ㅎ’ 종성 체언이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으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자음을 받침으로 적는 ‘팔종성법’을 적용하여 표기하였다. 그러나 ‘높고’가 아니라 ㉢ ‘높고’처럼 팔종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⑤ ㉠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06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환경에 따라 자음 뒤에서는 ‘이’가, ‘ㅣ’나 반모음 ‘ㅣ’ 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가 쓰였으며, ‘ㅣ’나 반모음 ‘ㅣ’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겹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는 ‘(사)다리가’로 해석되어 주격 조사가 쓰였지만, ‘ㅣ’ 모음 뒤이므로 주격 조사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 ‘뵤’는 ‘ㅣ’나 반모음 ‘ㅣ’ 뒤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가 겹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③ ㉢ ‘하닐히’에서 ‘하닐’은 ‘ㅎ 종성 체언’으로 자음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④ ㉠와 ㉡에 다른 형태의 주격 조사가 쓰인 것은 앞말의 의미가 아니라, 앞말의 음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⑤ ㉡는 ‘ㅣ’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는 자음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23~124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⑤ 06 ③

01 <보기>에서 현대 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모음자는 아래 아 ‘ㅣ’이고, 자음자는 ‘ㅎ, ㅇ, ㅁ’가 있다.

02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고저(높낮이)를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성조라고 한다. 성조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표기하였는데 이를 방점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방점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다.

② 성조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④, ⑤ 성조는 소리의 세기나 음의 길이가 아니라 소리의 고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 03 중세 국어에서는 중성으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자음을 받침으로 적는 팔중성법이 있었다.
- 04 ‘뿌메’는 ‘뿌-+-음+에’가 결합한 것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5 ‘빅 업건마룬’은 ‘배가 없건마는’으로 풀이하므로 ‘빅’은 주어이다. 이때 ‘빅’이 ‘ㅣ’나 반모음 ‘j’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왔으므로 ‘눔+이’, ‘말쌈+이’, ‘하눔+이’로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경우이다.
④ ‘홍 배’는 ‘할 바가’로 풀이하므로 ‘배’는 주어이다. 이때 ‘배’는 ‘바+ㅣ’로, ‘ㅣ’나 반모음 ‘j’ 외의 모음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인 경우이다.
- 06 ‘나라’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의미 차이가 없다.
|오답 풀이| ① ‘눔’은 중세 국어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나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다.
②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 ‘많다.’의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이르다.’의 의미로 바뀌었다.
④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의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변하였다.
⑤ ‘어엿브다’는 중세 국어에서 ‘불쌍하다.’의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다.’의 의미로 변하였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25~126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① 05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은 방점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방점을 찍어 음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었다. 06 ④ 07 ④ 08 ③ 09 ① 10 ② 11 ㉠ -음, ㉡ 에

- 01 (가)에는 ‘쁘들’, ‘뿌메’, ‘쁘르미니라’ 등에서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쓰였지만, (나)에서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② (가)의 ‘스믈’, (나)의 ‘믈’에서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말쌈’, ‘쁘들’, (나)의 ‘도뵤실씩’ 등에서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조사가 올 때 중성의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 내려 적는 이어적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말쌈’, ‘딛출내’, ‘뿌메’, (나)의 ‘업건마룬’, ‘도뵤실씩’ 등에서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

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2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최초로 기록된 작품은 (가)가 아니라 (나) 「용비어천가」이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지’ 부분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③ 세종 25년(1443년)에 창제된 훈민정음을 한자로 설명한 해례본이 세종 28년(1446년)에 나오고, 이를 세조 5년(1459년)에 한글로 풀어 쓴 언해본이 ‘세종어제훈민정음’이다.
④ (가)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인 후기 중세 국어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사용하던 문자는 중국 문자였는데, (가)에서 우리의 말이 중국의 것과 달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다.
- 03 ‘말쌈’은 현대 국어에서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가)에서는 ‘어엿비’가 ‘불쌍히’의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의 의미로 바뀌어 사용된다.
- 04 ‘스뫼디’를 ‘스뫼디’로 쓰지 않은 것은 중성으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자음만 받침으로 표기하는 팔중성법을 적용한 것이다. ‘스뫼디’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구개음화를 적용하면 ‘스뫼지’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아니홀씩’은 ‘아니하여서’, ‘아니하므로’로 풀이되므로 ‘-르씩’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쓰였다.
③ ‘니르고져’나 ‘너겨’는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이르고자’, ‘여겨’로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④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빙’이 사용되었다.
⑤ ‘쁘-’가 음성 모음이므로 모음 조화를 적용하여 음성 모음을 사용한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된 것이다.
- 05 중세 국어에서는 음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었고, 글자 왼쪽에 방점을 1개(높은 소리), 2개(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 찍지 않음(낮은 소리)을 통해 표시하였다.
- 06 ‘히여’는 현대 국어에서 ‘하여금’으로 풀이되는데, ‘하여금’은 ‘누구를 시키어’의 뜻이므로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07 ‘命홀실씩’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명(命)하시므로’가 되며, ‘-르씩’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 08 (가)에서는 자주(창조), 애민, 실용 정신의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를 밝히고 있다.
- 09 <보기>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표기하는 이어적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말쌈미’이

다. '말춤+이(주격 조사)'를 이어적기하여 받침 'ㄹ'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표기되면서 '말춤'이 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달아'는 끌어적기를 적용하여 표기하였다.

③, ④ '서르', '마춤내'는 모음 조화가 적용된 예이다.

⑤ '퍼디(>퍼지)'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이다.

10 ㉠는 'ㅣ'나 반모음 'ㅍ' 이외의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경우이므로 '홍배'의 '배'가 이에 해당한다. '배'는 '바'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형태이다.

11 '뿌메'는 '뿌-+-음+에'로 분석되는데, '뿌다'의 어간 '뿌-'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되고, 여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이다.

(2) 바르고 정확한 국어생활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28~135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돌자리 → 돛자리, 낫알 → 낱알
 06 ① 07 (1) ㉠ (2) ㉡ (3) ㉢ 08 ① 09 (1) 연세 (2) 익명 (3) 금
 다섯 냥 10 ⑤ 11 ① 12 넉넉치 → 넉넉지 13 ② 14 ②
 15 (1) 높이 (2) 익숙지 (3) 차마 16 ⑤ 17 ③ 18 ④ 19 (1) 올
 듯도한데 → 올 듯도 한데 (2) 한마리 → 한 마리 20 ③ 21 ③
 22 믿을것은 → 믿을 것은, 성실함 뿐이다 → 성실함뿐이다 23 ②
 24 ② 25 (1) 히 (2) 히 (3) 히 (4) 이 (5) 이

01 '꽃', '꽃이', '꽃나무'를 소리대로 [꼐], [꼬치], [꼐나무]로 적으면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단어의 본래 모양을 밝혀 '꽃, 꽃이, 꽃나무'와 같이 적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02 '땅, 하늘, 아름다워'는 소리와 표기가 같은 단어이고, '절머,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는 소리와 표기가 다른 단어로 어법에 맞도록 단어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다.

03 '몹시'는 [몹:씨]로 소리 나므로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가 아니라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표기하는 표의주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훨씬', ② '더워서'는 소리 나는 것과 표기가 같아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에 해당한다.

④ '웃어른[우더른]', ⑤ '듣고[듣꼬]'는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표기하는 표의주의에 해당한다.

04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⑤의 '깍둑썰기'와 같이 적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①의 '북쩍거렸다'는 '북적거렸다'로 ②의 '악

짜지꼈하였다'는 '악자지꼈하였다'로 적어야 하며, ③의 '갑짜기'는 '갑자기'로 적는 것이 옳바르다. 또한 ④의 '씩뚝'은 '씩둑'으로 적는 것이 옳바르다.

05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ㅅ' 받침으로 적어야 하므로 '뒹저고리', '돛자리', '무릎'이 맞다. 하지만 원래부터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으므로 '남알'로 적는다.

06 '출생 연도'에서의 '연도'는 명사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도'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년도'는 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라는 뜻을 지닌 의존 명사로, 의존 명사에서는 '년' 음을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도'로 적지 않고 '년도'로 적는다.

③ '연평균'은 '1년을 단위로 하여 내는 평균'을 뜻하는 명사로, '년'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연'으로 적는다.

④ '연'은 '한 해'를 뜻하는 명사로, 한자음 '년'이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으로 적는다.

⑤ '년'은 '해를 세는 단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년'으로 적는다.

07 (1) '어깨[어께]'는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는 예로 ㉠의 적용을 받은 예이다.

(2) '씩씩[씩씩]'은 'ㄱ, ㅂ' 받침 뒤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에 따라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3) '몽땅[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의 적용을 받은 예이다.

08 ①의 '사뭇'은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 'ㄷ'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사뭇'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결뿔하면', '젓가락', '기껏'은 받침을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ㅅ' 받침으로 적어야 한다.

⑤ '딘고'는 '디디고'에서 준말이 되면서 'ㄷ' 받침을 갖게 된 경우로, 'ㄷ' 받침으로 적어야 한다.

09 (1), (2)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경우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세', '익명'으로 쓴다.

(3)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의존 명사인 경우이므로 '금 다섯 냥'이 맞다.

10 '드러나다'는 '들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단어로, 표음주의를 따른 단어이다.

11 '넘어'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쓴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② '넘어'는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라는 '넘다'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다.

- ③ '넘어갔다'는 '넘다'와 '가다'라는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용언(합성어)가 된 것이다.
- ④, ⑤ '너머'는 '넘-+-어', '주검'은 '죽-+-엄'으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다.
- 12** '넉넉하지 않다'의 준말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준 경우로,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넉넉지 않다'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넉넉치'를 '넉넉지'로 고쳐야 한다.
- 13** ②의 '놀음'은 어간 '놀-'에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단어이나, 어간의 뜻과 떨어진 예이다. 따라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노름'으로 적어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마개'는 어간 '막-'에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애'가 결합하여 명사로 바뀐 경우로,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③ '거름'은 어간 '결-'에 접미사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지만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예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④, ⑤ '사라지다', '드러나다'는 각각 '살다+지다', '들다+나다'가 결합하면서 앞말의 본뜻에서 떨어진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14**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하므로, '굳이'로 적어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너무'는 어간 '넘-'에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인 '-우'가 결합하여 부사로 바뀐 경우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③ '깊이'는 어간 '깊-'에 접미사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로,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④ '조차'는 어간 '좃-'에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인 '-아'가 결합하여 조사로 바뀐 경우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⑤ '결음'은 어간 '결-'에 접미사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로,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15** (1) 어간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단어는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하므로 '높이'가 적절한 표기이다.
- (2) 'ㄱ' 받침 뒤에 오는 '하'는 통째로 줄기 때문에 '익숙지'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차마'는 용언의 어간 '참-'에 접미사 '-아'가 결합한 예이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16** 의존 명사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하여 앞말과 띄어 쓴다.
- 17** ③의 '부터'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하므로 '여기서부터'라고 써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②, ⑤ '것', '만큼', '지'는 모두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④ '만큼'과 '은'은 조사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 18** '지금으로부터'에서 격조사 '으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으로부터'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두시간뒤에는' '두'는 관형사, '시간', '뒤'는 명사이므로 모두 띄어 쓰고, 조사 '에는' 붙여 쓰므로 '두 시간 뒤에'로 띄어 쓴다. '약속대로'에서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만날것이다'에서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두' '시간' '뒤에' '약속대로' '영화관' '앞에서' '만날' '것이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19** (1)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성인데, 중간에 조사 '도'가 들어가면 보조 용언을 띄어 써야 하므로 '올 듯도 한테'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2)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 '마리'는 앞말과 띄어서 '한 마리'와 같이 써야 한다.
- 20** ③ '샜을 뻔이다'에 쓰인 '뻔'은 조사가 아닌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21** 보조 용언 중간(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들어가면 띄어 써야 하므로 '할 만은 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②, 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꺼져 간다'와 같은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이나, '올 듯하다', '모르는 척하다'와 같은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일 때 붙여 씀이 허용된다.
- ④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 22** '믿을것은'에서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성실함 뻔이다'에서 '뻔'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23** '하다'가 붙는 어근 뒤가 'ㅅ' 받침일 경우는 '이'로 적으므로 '의젓이'가 적절한 표기이다.
- | 오답 풀이 |** ①, ③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므로 '번번이', '곰곰이'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 ④, ⑤ 끝음절이 '히'로만 소리 나므로 '딱히', '급히'로 적는다.
- 24** '깊숙이'는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는 예로 ㉔에 적용된다. 'ㄱ' 받침으로 끝난 일부 어근 뒤에서는 '이'로 적어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산뜻이'는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므로 ㉔가 적용되어 '-이'로 적는다.
- ③ '엄격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서 '히'로만 나는 경우이므로 ㉔가 적용되어 '-히'로 적는다.
- ④ '고요히', ⑤ '분명히'는 '이, 히'로 나는 경우이므로 ㉔가 적용되어 '-히'로 적는다.
- 25** (1), (2), (3)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서는 'ㅅ' 받침을 제외하

고는 ‘히’로 적으므로 ‘딱히’, ‘과감히, 쓸쓸히’로 표기한다.
 (4) ‘하다’가 붙는 어근 뒤가 ‘ㅅ’ 받침일 경우는 ‘이’로 적으므로 ‘버젓이’가 맞다.
 (5)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서는 ‘이’로 적으므로 ‘새로이’가 적절한 표기이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36~137쪽

01 ㉔ 02 ㉕ 03 ㉔ 04 ㉔ 05 있는게 → 있는 게, 이것 밖에 → 이것밖에, 이제 부터는 → 이제부터는 06 ㉕ 07 (1) 다려 (2) 달히는 (3) 늘어

- 01 ‘설키다’는 ‘쉽다’나 ‘쉽히다’ 등의 단어가 없으므로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의 단어가 아니다.
- 02 ㉔ ‘꼬마들’, ㉕ ‘뛰어다니고’는 표음주의의 원리에 따라 소리로 적은 경우이고, ㉓ ‘맑은[마는]’, ㉔ ‘구름이[구르미]’, ㉕ ‘평화롭게[평화롭게]’는 소리와 다르게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히어 표의주의에 따라 표기한 경우이다.
- 03 ‘노름’은 ‘놀다’의 어간 ‘놀-’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되는 과정에서 어간의 본뜻과 떨어져 그 원형을 밝히어 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이다.
- 04 보조 용언의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하므로 ‘들어는 보았다’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되는 경우이다.
 ③ ‘지’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어미 ‘-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⑤ ‘에게’, ‘만큼’, ‘은’은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05 ‘있는게’에서 ‘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이것 밖에’에서 ‘밖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또한 ‘이제 부터는’에서 ‘부터는’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06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어야 하므로, ‘이튿날’이 맞다.
|오답 풀이| ① ‘나날이’는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②, ④ ‘거꾸로’, ‘잔뜩’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다음 음절의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③ ‘오뎅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 07 (1)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는 것은 ‘다리다’를,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드는 것은 ‘달이다’를 쓴다.
 (2)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다

치다’를,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가 도로 제자리로 가 막히는 것은 ‘닫히다’를 쓴다.
 (3)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는 것은 ‘늘이다’를, 물체의 넓이, 부피, 수나 분량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거나 많아지게 하는 것은 ‘늘리다’를 쓴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38~139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⑤ 06 ㉔ 달성케, ㉕ 어떨다, ㉓ 회상컨대 07 ㉔ 08 ③ 09 년도 → 연도, 싸인 → 쌓인, 집에서 뿐만 → 집에서뿐만

- 01 문장이 종결될 때 사용하는 ‘어떡해’는 ‘어떻게 해’의 준말이므로 ‘어떡해’를 써야 한다. 한편 ‘어떻게’는 ‘어떻다’의 활용형으로, ‘요즈음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처럼,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여 서술어를 수식한다.
- 02 ‘이래라저래라’는 ‘이리하여라 저리하여라’가 줄어든 말로 한 단어이다. 원형을 잘못 추측하여 ‘일해라 절해라’와 같이 어법에 어긋나게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이렇게[이러케]’, ‘꽃밭[꽃뻘]’, ‘젊음[절뎌]’은 표의주의에 따라 형태소 본래의 모양을 밝히어 표기하는 경우이다.
 ④ ㉔은 표음주의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로 ‘저리다’는 ‘절이다’와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저리다’는 ‘쭈시듯이 아프거나 감각이 둔하다.’,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로 ‘소금 따위를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03 제7항에 따라 ⑤ ‘얼핏’은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 나지만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ㅅ’으로 적으면 된다. 이는 ‘ㄷ’ 대신 ‘ㅅ’을 받침으로 표기해 오던 전통적인 표기 관습을 따른 것이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덧저고리 /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 04 ㉕ ‘덥석’의 표기는 적절하다.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05 ㉔의 ‘베품’은 ‘베풀다’의 어간 ‘베풀-’에 ‘-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로, 제19항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베품’으로 적어야 한다.
- 06 ㉔, ㉓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된 경우이므로, 제40항에 따라 ‘달성케’, ‘회상컨대’로 적는다. ㉕는 어간의 끝음절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떻다’로 적는다.

- 07** ④에서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뿐'과 '이다', '대로'는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공부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다른 것'의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가까워지기는커녕'에서 '는커녕'은 (보)조사 '는'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08** ③에서 '떠나가(떠나가다)'는 '떠나다'와 '가다'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다.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는 뒤에 오는 보조 용언과 띄어 써야 하므로 '떠나가√버렸네'만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읽어'에 '도'라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보조 용언 '보고'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② '놀아'에 '만'이라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보조 용언 '나는구나'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도'라는 조사가 '듯하다' 중간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다'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듯'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인 '올'과 띄어 써야 한다.
 ⑤ '덤벼들어'는 '덤비다'와 '들다'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므로, 보조 용언 '보아라'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09** '출간 년도'에서 '년도'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연도'로 써야 하며 '짜인'은 '여러 개의 물건이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이다.'의 뜻인 '쌓이다'의 활용형 '쌓인'으로 고쳐 써야 한다. 또한 '집에서 뿐만 아니라'에서 '뿐'과 '만'은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 매체와 함께하는 생활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42~143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② 05 ② 06 ⑤

- 01** 이 글은 통시적 관점에서 매체의 변화에 따라 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구술 매체, 문자 매체, 영상 매체, 디지털 매체의 사용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02** 말하기를 통한 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과 맥락을 공유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시간대나 다른 공간에 있다면 소통이 어렵다. 이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후대에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내용의 전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구전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 03** 영상 매체는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수가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소통하는 문화의 등장을 가져왔다.

- 04** ⑥는 이용자가 다른 문서나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텍스트이다. 이를 통해 매체 이용자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⑥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⑥가 매체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의 활용이 보편화되며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이 어떤 계기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기존의 대중 매체는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디지털 매체는 상호 작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중 매체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디지털 매체는 구술 매체, 문자 매체, 영상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 매체 소통 문화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은 매체 소통 문화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⑤ 5문단에서 무선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 06** ㉠과 ㉡는 모두 디지털 매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에서는 댓글이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 않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44~145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⑤ 05 ④

- 01** (나)는 문자 매체를 통해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문자 매체는 글쓴이와 독자 간에 맥락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구술 매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두 사람은 어지럼에 대해 말하기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② (가)와 같은 구술 매체를 통한 소통은 상황을 공유하며 이루어진다.
 ③ (나)와 같은 문자 매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이 가능하다.
 ④ (나)에서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의학 지식을 잘 배우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 02** (나)는 문자 매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다)는 영상 매체의 한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문자 매체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문

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비해 영상 매체는 문자뿐만 아니라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도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읽고 쓰는 능력의 여부가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 03 (다)는 영상 매체인 방송 뉴스이고, (라)는 디지털 매체인 인터넷 신문이다. (다)와 (라)는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이다.
- 04 '블로그 바로가기'란 링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링크는 기형도 문학관을 방문했던 '시인 좋아'가 자신의 후기를 하이퍼 텍스트로 제시한 것이다. 링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 후기를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학관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문학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찾아오게 하는 링크는 기형도 문학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없다.
- 05 (나)의 '촛오'는 언어의 형식이나 의미를 바꾸어 재미나 독특함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려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오타 쓰기를 하고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46~147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② 05 낚냄, 만나용

- 01 이 글은 매체가 등장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여, 구술 매체, 문자 매체, 영상 매체, 디지털 매체의 순으로 매체의 변화에 따라 소통 방식이나 소통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통시적 관점에서 매체가 소통 방식이나 소통 문화와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02 이 글에서는 구술 매체, 문자 매체, 영상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과 문화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03 ㉠과 ㉡을 비교할 때,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수월한 것은 ㉡이다. ㉡은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은 ㉡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하는 데 제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서술형 GO | 예시 답 |** 다른 시간대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이 어려워 지식과 정보의 기록, 보존,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04 (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예를 보여 주고 있고, (나)는 실시간 1인 미디어 방송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가)는 '-미니다', '-세요' 등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어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도 '-요', '-세요' 등의 어미를 사용해 경

어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 (나)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여 이용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5 '낚냄', '만나용'은 언어의 형식이나 의미를 바꾸어 재미나 독특함을 표현하려는 언어적 특성이 드러나 있다. '낚냄'은 모음을 탈락시킨 경우이고, '만나용'은 자음을 추가한 경우이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48~153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① 08 ②
 09 해설 참조 10 해설 참조 11 해설 참조 12 ④ 13 ① 14 ④
 15 ② 16 ④ 17 ④ 18 ④ 19 ③ 20 해설 참조 21 해설 참조
 22 ⑤ 23 ① 24 ⑤ 25 ① 26 ④ 27 해설 참조

- 01 '전츠로'의 '츠', '흙 배'의 'ㅎ', '수비'의 '빙'은 모두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음운이다.
 - 02 (나)의 '하·놀·히(하·놀+이)'는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 03 '도·벌실씨(도우시므로)'는 '둥-+-으-+-시-+-르씨'와 같이 분석되며, 둥는 행위의 주체(하늘)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와 같다.
- |오답 풀이 |** ① 명을 내리는 하늘을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② 건너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③ 청자를 높이기 위한 평서문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⑤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기 위한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다. 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 04 두음 법칙은 특정 소리가 단어 첫머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꺼리어 발생하는 음운 현상인데, '날로'는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다. (가)의 '니르고져(이르고자)'나 '너겨(여겨)'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05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나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 |오답 풀이 |** ①은 '까닭'이라는 의미의 말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말이다.
 ②, ④, ⑤ '어린'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하니라'는 ' 많다.'에서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이룬다.'로, '어엿비'는 '불쌍히'에서 '예쁘게'로 모두 현대 국어에서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06 (가)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와 목적이 나타나는데, 백성을 바른 길로 교화하고자 하는 계몽 정신이 담겨 있지 않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에는 중국의 글자를 빌려 사용하지 않고 고유의 문자를 갖고자 했던 자주 정신과 창조 정신,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 정신,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쓰기에 편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실용 정신이 담겨 있다.

07 <보기>에서 ‘-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① ‘아니 **홀췌**’는 ‘아니하므로’의 뜻이므로 ‘-**르췌**’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임을 알 수 있다.

08 ‘**中**國國에달아’는 현대어로 ‘중국과 달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때 ‘에’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①은 현대어로 ‘우리나라의 말’로 풀이할 수 있으며, ‘시’는 현대 국어의 ‘의’와 같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등급 서·논·술형

09 **| 예시 답 |** ‘스뫏다’의 어간 ‘스뫏-’의 ‘ㅈ’이 ‘ㅅ’으로 바뀌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는 종성으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자음만을 받침으로 적는 팔중성법이 적용되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스뫏다’의 어간의 ‘ㅈ’이 ‘ㅅ’으로 바뀌어 팔중성법이 적용되었음을 밝히고, 종성으로 표기되는 8개의 자음을 모두 맞게 쓴 경우	5
	‘스뫏다’의 어간의 ‘스뫏-’의 ‘ㅈ’이 ‘ㅅ’으로 바뀌어 팔중성법이 적용되었음을 밝혔으나, 종성으로 표기되는 8개의 자음 중 일부를 잘못 쓴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10 **| 예시 답 |** (가) 스물, (나) 물 /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에 의해 ‘스물, 물’로 표기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원순 모음화와 관련된 ‘스물’과 ‘물’을 모두 찾고,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5
	원순 모음화와 관련된 ‘스물’과 ‘물’을 모두 찾았지만,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11 **| 예시 답 |** (1) ㉠ 이, ㉡ ㅣ, ㉢ 말쌈미(또는 **빅**성이, 노미, 하늘히), ㉣ 배(또는 내), ㉤ **빅**(또는 **드**리) (2) ㉥ 형태의 주격 조사는 ‘ㅣ’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뒤에서 ‘ㅣ’가 쓰이는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뒤의 주격 조사로 ‘가’가 쓰인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1)의 ㉠~㉢를 모두 맞게 쓰고, (2)에서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1)과 (2) 중 한 가지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2 ‘날날이’는 표의주의를 반영한 표기이다. 소리는 [난:나치]로 나지만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어(한글 맞춤법 제20항) ‘날날이’로 표기한다.

| 오답 풀이 | ① ‘녀자’를 ‘여자’로 적는 것은 두음 법칙을 적용한 표음주의를 반영한 표기이다.

② ‘꽃이’로 표기하는 것은 표의주의를 반영하여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

③ ‘굿다’의 활용형을 ‘굿어’가 아니라 ‘그어’로 적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⑤ <보기>에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표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원형을 밝히어 적으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보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13 제5항은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는 규정에 해당한다.

14 [소쩍쩍]의 [ㅈ]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다. 즉,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 오답 풀이 | ①, ②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몹시’, ‘짜두기’로 적는 것이 맞다.

③ ‘산뜻하다’는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⑤ ‘어께’는 두 모음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15 ‘2025년도’에서 ‘년도’는 의존 명사이므로 ‘2025년도’로 쓰는 것이 맞다.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6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에서 ‘늘어나다’와 같이 앞말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고, ‘드러나다’와 같이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

었다. 따라서 [붙임 1]에 표음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하' 앞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일 때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이로 볼 때 '넉넉하지'의 경우 '하' 앞의 받침 소리가 [ㄱ]이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들어 '넉넉지'로 적어야 한다.

18 '미달이'는 '미달다'의 어간 '미달-'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 '마중'은 '맞(다)-+-옹', '주검'은 '죽(다)-+엄', '우스개'는 '웃(다)-+-으개', '귀머거리'는 '귀떡(다)-+-어리'의 형태로, 모두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것이다.

19 ㉓에서 '대로'는 체언 뒤에 붙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약속대로'는 붙여 쓰는 것이 맞다.

1등급 서논술형

20 | 예시 답 | ㉠은 '물다'의 어간 '물-'에 '-이'나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엄'이 결합하여 명사로 된 것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은 '웃다'의 어간 '웃-'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과 ㉡의 표기 방식을 <보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과 ㉡의 표기 방식을 모두 설명하였지만 근거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	3
	㉠과 ㉡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21 | 예시 답 | 베품 → 베풀, 답씩 → 답석, 한것 → 한 것 / '베풀다'의 어간에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베풀'으로 적는다. '답석[답씩]'은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한 것'에서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잘못된 부분 3가지를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잘못된 부분 2가지만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2 (마)에서는 매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을 제시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1인 미디어 방송의 특징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23 이 글에서는 시대마다 주로 사용하는 매체가 변화해 온 것을 통시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변화에 따라 소통 방식과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은 각 시대에 주로 사용된 매체의 특성이 달라져 소통 방식과 문화도 변화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4 (라)에서 디지털 매체는 음성,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양식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수용과 생산에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내용 이해 정도에 대해 디지털 매체와 다른 매체를 비교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매체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디지털 매체는 복합양식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시청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술 매체나 문자 매체 등에 비해 내용 이해 정도가 높다고 본다.

25 ㉠ '구술 매체'는 내용이 구전되어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하기의 특성상 공유된 내용을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6 ㉠과 ㉡는 모두 디지털 매체로 이용자가 지식과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상호 작용성을 지닌다. 이는 댓글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1등급 서논술형

27 | 예시 답 | ㉡의 사례로는 '영상 바로 가기'를 들 수 있다. 하이퍼 텍스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사례로는 실시간 대화를 들 수 있다.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 ㉡가 나타난 사례와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
	㉠, ㉡가 나타난 사례 중 한 가지 사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5 디지털 시대, 우리의 생활

(1)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매체 비평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58~161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7 ④ 08 ③
 09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01** (가)에서 웹툰 「정년이」에 대해 웹툰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웹툰의 무한함을 증명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후, 이와 관련하여 「정년이」만의 특징을 요소별로 부각하고 있다.
- 02** ㉠은 웹툰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상상력, 장르, 소재 등의 한계가 없다는 의미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을 바탕으로 기존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시도들을 웹툰에서 많이 해 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03** 「정년이」는 시작과 동시에 소리를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웹툰의 태생적 한계를 표출한다. 즉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소리를 청각으로 온전히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년이」는 청각으로 전해지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해 보여 주고 있다. 이로 볼 때 독자에게 청각으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04** (라)에서 웹툰은 평면에 구현되어 장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힘든 한계가 있지만, 「정년이」는 다양한 기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극극단의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전체 무대를 한 화면으로 보여 주기, 여러 컷으로 나누어 보여 주기, 클로즈업, 오버랩 효과 등을 활용하여 극극단의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앵글을 한 화면에 보여 주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 05** (라)에서 「정년이」는 배우가 공연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열연을 펼칠 때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함께 그려 오버랩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거나 현재 등 시간이 일시적으로 겹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정년이」에서 오버랩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인물의 성격을 강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마)에서 무대가 현실과 다른 별도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열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였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등장인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을 초

- 래하는 것은 닫힌 공간으로서의 무대의 성격이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② 「정년이」는 정년이라는 인물이 중심을 잡으면서,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함으로써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 ③ 「정년이」에서는 매란 극극단의 많은 연구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이고 찬란한 물결의 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다.
- ④ 닫힌 공간의 무대에서 인물들의 갈등만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면 단선적으로 서사가 전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정년이」가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성장보다 수많은 작고 큰 물결들이 함께 넘실거리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이고 찬란한 물결의 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 07** 정년과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성장하는 인물은 주란이 아니라 영서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도영을 통해 웹툰 독자에게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석해 주고, 극극이란 낯선 장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하였다.
- ③ 영서는 독불장군 유형의 인물에서 점차 상대와 호응하는 법을 알아 가게 된다고 하였다.
- ⑤ 주란은 주인공의 친구 정도로 인식되다가 「자명고」 공연에서 강한 힘과 반전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 08** 이 글에서는 「정년이」가 성별, 신분, 예술 등에 대한 편견을 제시하고 인물들이 그 편견들을 극복함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즉 편견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인물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09** 정년은 성별에 대한 편견을, 도영은 신분에 대한 편견을, 영서의 어머니는 예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물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된다.
- 10** 이 글에서는 「정년이」에 시대와 사회의 여러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편견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정년이」에서는 시대와 사회의 편견을 외부에서만 찾지 않고 인물들에게 스며든 내면의 편견까지 들춘다.
- ② 극극단 배우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연쇄적으로 관객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 ③ 인물들의 내면에 스며든 편견을 인물들이 극복함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룬다고 하였다.
- ⑤ 「자명고」를 공연할 때 한 할아버지가 ‘군졸 1’의 연기에 감화되어 성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11** 할아버지는 손자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객석에 앉아 여성이 남성을 연기한다는 점에 눈살을 찌푸린다. 이는 성별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정년의 '균줄 1'의 연기에 감화되어 눈물을 쏟는다. 이는 정년의 연기에 감화되어 편견을 극복한 모습으로, 성별 역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정년의 성장이 관객에게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12 ㉔에 대한 정년의 대답이 처음에는 '부자', 그 다음은 공연에서 '방자'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바뀌고 있다. 이는 정년이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국극 연기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 표현하고 싶은 존재 자체가 되고 싶은 열망을, 즉 국극 배우로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62~163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1 이 글은 웹툰 「정년이」가 가진 소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점, 평면에 구현되어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 무대 공간의 한계, 시대와 사회의 편견 등의 한계를 제시하고, 「정년이」가 그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비평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는 여성 국극단 인물들의 성장과 그 성장이 관객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 비평하고 있을 뿐, 국극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평면에 구현되어 국극단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한 것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② 인물들의 다양한 역할과 성격이 서사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③ 독자에게 낯선 여성 국극의 전통 음악을 형상화한 방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⑤ 성별, 신분, 예술 등에 관한 편견을 인물들이 극복함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루고 그러한 성장이 관객에게 전해져 편견의 극복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03 글쓴이는 무대라는 닫힌 공간에서는 서사가 인물 간의 경쟁에 치우치면 갈등 중심의 단선적인 서사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년이」는 인물들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개성적인 모습과 다양한 성장을 그린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통해 무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였다.

04 <보기>에서는 「정년이」가 최근의 시대물 웹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밝은 파란색과 보색 관계의 황토색을 주로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시대물 웹툰에서 주로 사용되는 색깔에 주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정년이」에서 명암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

여 배경을 평면으로 표현했고 그 결과 인물에게 주의가 더 집중되었다는 효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③ 「정년이」에서 보색 관계인 파란색과 황토색을 주로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④ 「정년이」가 다른 웹툰에 비해 화풍이 독특하다고 하며 색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⑤ 파란색을 사용한 대상은 하늘과 치마, 황토색을 사용한 대상은 건물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05 「엄마의 빈방」 광고는 엄마와 딸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언제나 자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소단원 적용 문제 본문 164~165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정년이」는 웹툰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웹툰의 무한함을 증명한다.

01 이 글은 「정년이」에서 소리와 국극 공연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평한 후, 서사 전개, 인물의 성격, 시대와 사회의 편견 등에 주목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작품의 특징을 분석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02 (마)에서는 ㉔의 닫힌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경쟁을 초래해 갈등만을 중심으로 서사가 단선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㉔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성격은 현실과 다른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무대 전체 화면, 여러 컷, 클로즈업, 오버랩 효과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노랫말, 동작, 앵글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게 한다.

03 (다)에서는 「정년이」가 여성 국극의 낯선 소리를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정년이」가 다채로운 동작과 역동적인 앵글을 통해 청각으로 전해지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해 보여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색의 활용에 주목하여 「정년이」에서 색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 특징을 분석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04 ㉔는 정년을 향한 질문이지만 글쓴이는 낯선 여성 국극을 끌어온 이유를 되묻는 질문이라고 평가하며 작품 전체와 관련된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㉔는 ㉔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작품 전체적으로 여러 한계를 극복하는 양상이 웹툰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열망인 것이라며 「정년이」의 비평적 가치를 부각하는 것이다.

05 글쓴이는 「정년이」가 웹툰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웹툰이 가진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며 웹툰의 무한함을 증명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2) 복합양식의 글 읽기와 쓰기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68~174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② 10 ④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⑤ 16 ⑤
 17 ④ 18 ① 19 ③ 20 ④ 21 ⑤

- 01** 이 글은 미세 플라스틱의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주장은 드러나지만 이와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02** (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작게 쪼개져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03** 미세 플라스틱은 물속의 각종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는데, 특히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중금속 등이 미세 플라스틱에 쉽게 달라붙으므로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라고 한 것이다.
- 04** (나)에서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첨가제로 투입된 각종 화학 물질이 새어 나오기도 하고, 이 화학 물질에는 다양한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폴리염화 비닐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빛을 오래 받으면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새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해양 생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쳐 결국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첨가제로 투입된 각종 화학 물질이 새어 나오기도 한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상위 포식자로 이동하며 먹이 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들의 몸속에 잔류하게 된다고 하였다.
- 05** (라)를 보면 믿을 만한 기관인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 대학교의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 06** (라)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 들어온 독성 물질과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된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 안에 잔류하여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 07** '지구 표면의 3/4을 차지하는 해양 생태계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면 과연 인류는 안전할까?'라고 질문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그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고 답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08** [A]의 맺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하고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된 성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09** 이 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들은 원그래프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동영상 자료로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11** 이 글은 기사글이므로, 반론의 근거가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타당하게 뒷받침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12** 기사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 중 합성 섬유 비중이 가장 크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읽고 정할 주제로는 '합성 섬유 미세 플라스틱 배출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가장 적절하다.
- 13** 공동 보고서는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찰, 조사, 답사 연구, 실험 등을 수행한 뒤 그 절차와 결과를 정리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보고서를 쓸 때에는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동영상, 그림, 그래프 등 복합양식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14** 수지는 자연과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적절한 시각 자료로 구성한다고 했고, 설문 조사는 민호가 하기로 했다.
- 15** 환경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나 공동 보고서의 목차에서 보고서 작성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 16** 자료 4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에 관한 통계 자료로, 의생활과 관련하여 미세 플라스틱 배출 감소 방안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에서 합성 섬유로 만든 의류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② 자료 2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되면 세포 훼손, 독성 증폭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③ 자료 3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성 섬유 이용과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관한 인식이 낮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④ 자료 4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 중 합성 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 17** 자료 4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합성 섬유임을 알 수 있다.

- 18 다양한 양식의 매체 자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자료들이 믿을 만하고 분명한 출처의 정확한 자료여야 신뢰성이 높아진다.
- 19 '㉠-(1) 자료 조사 결과'에서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했다.
- 20 '㉠-(2)' 설문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에게 합성 섬유 이용과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21 복합양식 자료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복합양식 자료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소단원 적용 문제

본문 175~176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② 06 미세 플라스틱의 화학 물질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성분들이 해양 생물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글로, 독자들에게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 글에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되는 주장이나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그래프나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미 구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④ 세계자연기금의 동영상,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고서,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대학교의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며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동영상,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을 다룬 그래프,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그린 그림,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을 찍은 사진 등이 어우러진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다.
- 02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외선에 노출되고 어딘가에 부딪히며 부서진 이후에는 물속의 각종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고 이후에는 각종 화학 물질이 새어 나온다고 했다.
- 03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였지만 모두 배출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된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 안에 잔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04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 그림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지고, 이것을 해양 생물이 섭취하면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들이 섭취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여 준다.

- 05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의 혈액과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06 미세 플라스틱에는 첨가제로 투입된 각종 화학 물질이 있는데, 화학 물질이 새어 나오는 과정에서 해양 생물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독약'이라고 표현했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77~180쪽

01 ④ 02 ⑤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⑤ 06 ① 07 ③
08 해설 참조 09 ⑤ 10 ④ 11 해설 참조 12 해설 참조

- 01 (다)에서는 「정년이」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해 소리를 형상화한 방식에 대해 사례를 들어 비평하고 있다. 그리고 (라)에서는 국극단의 공연을 입체감 있게 형상화한 방식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며 비평하고 있을 뿐 (다)에서 설명한 「정년이」의 주요 장면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부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정년이」에 대한 비평적 관점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이 「정년이」의 여러 한계 극복 방법과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는 「정년이」가 여성 국극을 소재로 삼아 독자들에게 낯선 전통 음악을 형상화한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③ (다)에서는 「정년이」에서 어떻게 여성 국극의 전통 음악 소리를 형상화했는지를 분석적으로 밝히고 있다.

⑤ (라)에서는 웹툰이 평면에 구현되는 시각 매체로서 갖는 한계를 「정년이」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 02 「정년이」에서는 배우가 공연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열연을 펼칠 때 배우와 공연 캐릭터를 함께 그려 오버랩 효과를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거나 현재 등 시간이 일시적으로 겹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줄 때 사용되는 오버랩 효과와 구별된다.
- 03 「정년이」는 다채로운 동작과 역동적인 앵글을 통해 청각으로

전해지지 않는 낮은 소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즉 인물의 다양한 동작을 보여 주면서 컷의 앵글에 역동적인 변화를 주어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등급 서논술형

04 | 예시 답 | 기존의 웹툰 작품들에서 다른 음악은 독자층에게 익숙한 장르였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연상할 수 있었지만, 「정년이」는 여성 국극을 소재로 낮은 전통 음악을 다루고 있어 독자들이 소리를 떠올리기 어렵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음악을 소재로 한 기존의 웹툰 작품과 「정년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비교하고, 독자 입장에서의 차이점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5
	음악을 소재로 한 기존의 웹툰 작품과 「정년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지만, 독자 입장에서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기존의 웹툰 작품과 「정년이」를 비교하지 않고 「정년이」의 특징만 서술한 경우	1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5 이 글에서는 「정년이」의 인물들이 성별, 신분, 예술에 관한 편견을 극복하며 내적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이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도 확산된다고 하였다. 이는 작품의 내용상 특징을 분석한 것인데, 이를 통해 인물들의 삶에도, 웹툰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작품에 녹아 있다며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06 ㉠은 「정년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정년의 대답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정년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은 정년에 대한 질문이자 작품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작품의 비평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즉, 「정년이」가 겉핥기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인물들의 삶에도, 웹툰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작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07 ㉢는 양반 가문 출신인 자신이 기생으로 일하며 국극을 시작했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기생으로 일하며 국극을 시작한 배우들과 자신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며 생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는 여성이 남성 연기를 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연기력에 놀랐다. 이는 ㉢가 성별 역할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② ㉢는 아버지로부터 솔하게 들어온 편견의 말들이 자신에게 체화됐음을 깨닫고 이겨 내려 한다고 하였다.

1등급 서논술형

08 | 예시 답 | 국극단 배우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내적으로 성장한 것이 연기로 표현되고, 이를 보는 관객들도 감화되어 편견을 극복하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 나타나고 있는 의미를 〈조건〉의 형식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가 나타나고 있는 의미를 서술하였지만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9 전문가가 제시한 기준이 언급되지 않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인한 피해를 분류하고 있지도 않다.

10 독자 1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탐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독자 3은 미세 플라스틱 외에 다른 문제 요인은 없는지 궁극 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탐구 계획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1등급 서논술형

11 | 예시 답 |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상위 포식자로 이동해 먹이 사슬의 단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몸속에 잔류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의 이유는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12 | 예시 답 |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두 가지와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두 가지를 서술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학교 시험 직전 대비 문제

1단원 실전 모의고사

본문 183~187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② 05 ② 06 해설 참조 07 ⑤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④ 13 해설 참조

01 이 글은 (가)에서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첫째, 둘째, 마지막’의 표지를 사용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02 별점의 분포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극단적인 별점을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주는 행위로 인해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②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별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중 소수나 일부의 평가이다.

⑤ 별점의 중간값 근처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정상 분포를 이룬 경우이다.

03 ①은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이다. ④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별점 점수를 낮게 줄 수 있고, 이를 이용하려던 사람이 낮은 점수의 별점 평가를 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별점 제도를 활용한 것이지, ⑦의 피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⑤ 악의적이고 조작된 별점 평가로 인한 판매자의 피해에 해당한다.

②, ③ 조작되거나 감정적인 별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해당한다.

04 ㄱ은 극소수의 악의적이고 극단적인 평가로 별점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자의 수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별점을 표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별점을 평가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여 자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악성 평가를 걸러 내는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05 ㄹ은 ㄷ가 아니라 ㄹ의 의견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ㄱ가 작성하고 ㄷ가 공유하는 의견들이 ㄷ의 의견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06 | 예시 답 | <그림 2>처럼 이용자의 호불호가 뚜렷해서 중간값인 3점에는 별점이 거의 없고 양극단에 치우친 엠(M)자형 분포의 경우에도 별점 평균이 중간 정도라고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그림 2>의 분포의 경우와 잘못된 추론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그림 2>의 분포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잘못된 추론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7 (나)에서는 신경 세포와 인공 신경망에서의 학습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스티븐 핑커 교수와 대담을 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지능과 지성의 개념을 구별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신경 세포를 줄기 달린 양파와 같다고 비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신경 세포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전거 타기의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08 (가)의 대담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과 의지는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특성이라고 반응할 것이다.

09 (나)에서는 인공 신경망의 가중치에 따라 출력값이 바뀐다는 내용은 있지만 입력값과는 상관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인공 신경망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다.

② 숨겨진 층에 있는 신경 세포에서 입력된 값의 합이 임계값을 넘으면 1을 출력한다고 하였다.

③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 전기 신호는 화학 신호로 바뀌어 전달된다고 하였다.

④ 신경 세포들이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어 연결이 강화되고 약화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10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는 이유는 뇌에서 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리지만 결합 강도가 약하여 신경 신호의 전달 속도가 느리고 근육의 움직임이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뇌에서 입력되는 명령의 개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다.

11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계론적 접근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12 ㄷ이나 ㄹ은 모두 로봇이 능이나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와 상관 없이 가치 판단의 문제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이다.

13 | 예시 답 | 로즈는 다른 동물들과 일상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으므로 로즈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ㄹ의 입장에서 본문의 근거를 들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ㄹ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서술하였으나, 본문의 근거를 명확하게 들지 못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단원 실전 모의고사

본문 190~197쪽

01 ⑤ 02 ④ 03 해설 참조 04 ② 05 ② 06 ③ 07 ③ 08 해설 참조
 09 ⑤ 10 ① 11 ⑤ 12 ③ 13 ③ 14 ⑤ 15 ④ 16 해설 참조 17 ⑤
 18 ④ 19 ③ 20 ④ 21 ⑤ 22 해설 참조 23 ⑤ 24 ④

01 향가인 (가)에는 규칙적인 글자 수에 의한 운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사인 (나)에서는 3·4(4·4)의 규칙적인 글자 수의 운율이 나타난다.

02 (나)에서 '강산'은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로 화자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미타찰'은 불교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설정된 세계로 도를 닦아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다.

② '강산은 드릴 댈 업스니'라고 하였으므로, '초려 삼간'에 들이기 어렵다고 인식된 대상이다.

③ '미타찰'은 그리운 대상인 '누이'와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 투영된 공간이다.

⑤ '미타찰'은 화자가 '도 닦아'를 통해 이를 수 있고, '강산'은 '돌너 두고'를 통해 화자가 가까이 둘 수 있다.

03 **| 예시 답 |**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하고 청빈한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두 작품에 공통된 화자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언급한 경우	5
	두 작품의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화자의 공통된 가치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4 ㉠에서 화자는 자신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풍월주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홍진(紅塵)에 못친 분'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은 자신과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는 청자에게 건넨 표현이다.

③ ㉡은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경치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므로, 예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④ ㉢은 화자가 몰아일체를 느끼며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모습이므로, 어느 곳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화자의 초조함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아는 이가 없어 혼자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지만, 바깥 세상에 알고 싶은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고 있으며, 소유의 삶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6 이 글에서 불승은 소유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을 뿐,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다.

07 <보기>에서 성진은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배워 큰 도리를 얻은 후 극락으로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진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불법을 깨우쳤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8 **| 예시 답 |** 꿈에서 현실로 국면을 전환시킴으로써 소유가 자신이 본래 성진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 자신이 성진이었음을 깨닫게 한다는 기능을 서술한 경우	5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9 ㉠을 통해 소유는 불승과의 인연을 기억해 내지만, ㉡에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은 불승이 성진으로 하여금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꾸게 한 꿈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성진의 꿈속에서 소유가 꾸 꿈이고, ㉡은 성진이 꾸고 있는 꿈이다.

② 소유가 ㉠을 환상적 공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고, ㉢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10 '일장춘몽'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은 소유가 자신이 성진임을 깨달은 후 소유로서의 삶을 회상하며 한 말이므로 소유로서 살아온 인생이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11 (가)의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며 내면적 자아에 대해, (나)의 화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12 (가)에서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부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13 <보기>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며 우물 안의 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자아 성찰은 외적 자극에 의한 자아 인식이 아닌 내적 작용이라고 하였다. 화자가 사나이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는 것을 외적 자극에 의한 자아 인식 과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4 (가)에서 2연과 6연이 반복되는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이므로, 일제 강점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5 (가)에서 화자가 우물 속 사나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사나이에 대한 미움과 연민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다.

16 | 예시 답 | (나)는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도시 빈민 노동자들의 비애를 노동자의 목소리로 들려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의 창작 의도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
	(나)가 창작된 시기의 시대적 상황만 드러나 있는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17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 즉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미워하면서도 '다시' 우물로 찾아와 연민을 느끼는 등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나)의 화자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에 비애를 느끼지만 결국 가난한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는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고, ⑤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체념하고 있으므로 둘 다 화자가 처한 상황을 희망적으로 인식하거나 현실을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④는 화자가 객관화된 자아에 대한 애증의 감정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객관화된 자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⑥에도 비참한 현실 인식과 체념이 드러날 뿐 인생에 대한 후회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④ ⑤에서 화자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지 화자가 추

구하는 가치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⑥에서 화자는 고된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으므로 추구하는 가치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

- 18 ③의 '가없어집니다'는 객관화된 자아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는 시어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것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19 이 글에서는 연우의 방과 연우와 채영이 함께 있는 학교 운동장이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빈번한 장소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사건 전개에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낙서의 존재와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의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텅빈 운동장의 하늘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변화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④ 전체적으로 현재형으로 진술하면서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깃털처럼', '뒤집힌 검은 양탄자 같고', '노래방의 조명등처럼'과 같이 직유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0 이 글에서 '거울'은 '날개'를 비추어 주는 매개체로, 인물이 자신만의 꿈과 이상을 찾아 날아가는 상상을 하게 한다. '바람'은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심리의 변화를 상징한다.
- 21 이 글에서 우주와 우주 정거장은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이므로,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간다.'는 말은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인물들의 의지와 다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2 | 예시 답 | 노래의 '레츠 고 스페이스'라는 가사와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간다.'라는 서술이 연결되어 서사 구조의 유기성을 드러내면서 현실의 고정관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작품 속 내용과 노래 가사를 연관지어 삽입 노래의 기능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삽입 노래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작품 속 내용과 노래 가사를 연관지어 설명하지 못한 경우	3
	삽입 노래의 가사 내용만 밝힌 경우	1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23 이 글에서 '나'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채영은 타인의 기준에 얽매어 살아가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빛이 넘치는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는 것’은 정해진 목표나 도달점을 묻지 않는 것이다. 곧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기준이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즉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보기>에서 ‘나’는 방의 전 주인이 그린 낙서가 있는 벽으로 다가가 전 주인이 그렸던 새의 윤곽에 이어서 날개를 더 크게 그리면서 ‘나’만의 연우-그리핀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전 주인의 낙서가 없는 벽에 ‘나’만의 고유한 그리핀을 그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단원 실전 모의고사 본문 199~203쪽

01 ④ **02** ③ **03** ⑤ **04**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④ **08** ④ **09** ① **10** ⑤ **11** ② **12** ① **13** 해설 참조 **14** ①

01 자신의 요구 사항을 고수하려고만 하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2 동아리 측은 강당 지붕 공사로 다음 달에 예정된 정기 공연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㉞)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에 있는 소극장을 동아리 연습 및 공연 장소로 빌리고자 하는(㉟)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민 측이 ㉞를 수용하면 ㉟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㉟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㉞를 수용할 수 있다.

② ㉞는 주민 측이 ㉞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

④ ㉞는 ㉟의 문제를 불러일으킨 원인과는 상관이 없다.

⑤ ㉞가 ㉞의 이유에 해당하므로, ㉞가 발생하기 이전에 동아리 측은 ㉞의 요구 사항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03 [E]는 상대측이 생각하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발화이다. 요구 사항이 수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언급하여 상대측의 양보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A]는 풀빛고등학교 학생의 절반가량이 다빛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주민 문화 센터를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상대측의 주장을 약화하고 있다.

② [B]는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요건으로, 소극장 대여에 따르는 비용과 불편함에 상응하는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③ [C]는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대안으로 주민들의 연극 공연 관람 허용

을 제시하고 있다.

④ [D]에서는 주민들도 연극을 관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실질적인 이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04 주민 대표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05 | 예시 답 | ㉞ 공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주민 문화 센터 소극장에서 연습하기로 함. 단 공연 전날은 9시까지 이용함. ㉟ 동아리 학생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번씩 방문하여 도움을 주기로 함.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㉞와 ㉟의 조정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5
	㉞와 ㉟의 조정 내용을 모두 썼으나 내용이 미흡하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3
	㉞와 ㉟의 조정 내용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6 학생들이 겨울 방학에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을 돕겠다는 방안을 주민 대표가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방안은 주민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

07 ㉞은 상대측이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발화가 아니라, 상대측이 제공하기로 한 연기 기초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발화이다.

| 오답 풀이 | ① ㉞은 연습 최종 단계에 소극장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의 필요성을 상대측에 알리고자 하는 발화이다.

② ㉞은 소극장에서 연습하게 해 달라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이 수용 가능한지 알기 위해 연습 기간을 묻는 발화이다.

③ ㉞은 학생들이 제공하는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묻는 발화이다.

⑤ ㉞은 상대측이 제공하기로 한 어르신들의 연극 활동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묻는 발화이다.

08 ㉞는 소극장 관리자의 근무 시간 문제로 인해, ㉞는 학생들의 시간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밝히고 있다.

09 글쓴이는 만경강, 삼례의 문화 예술촌의 책 공방, 책 박물관, 목공소, 디자인 박물관, 문화 카페, 카페 밖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각각의 공간에서 보고 느낀 점을 드러내고 있다.

10 글쓴이는 (가)에서 문화 예술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고, (나)에서 새롭게 전시된 문화 예술을 관람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서 고통의 시대가 남긴 유산과 이 시대의 문화 예술이 공존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11 ㉠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글쓴이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므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은 강과 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만경강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은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하는 자신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나비', 다양한 문화 예술을 '색다른 음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은 목공소 문을 열자마자 맡을 수 있는 짙은 나무향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⑤ ㉠은 시간의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였다.

12 (다)에서 글쓴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남남이 아니며, 시간 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삼례의 문화 예술촌이 고통의 시대가 남긴 유산과 이 시대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카페 안과 밖의 풍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촌 내부의 현대적인 전시와 오래된 외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낯설지 않다고 한 것이다.

④ 창고 건물들과 삼례 성당, 마당 곳곳의 조형물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했지만,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은 아니다.

13 | 예시 답 | • 짙은 나무향을 맡으며 고향 소식을 들은 듯 반가움.

- 내부가 깔끔하고 조용해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짐.
- 작품들이 담백한 느낌이라 마음이 편안함.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에 들어갈 감상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5
	㉠에 들어갈 감상 중 두 가지만 적절히 쓴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4 작문 윤리는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실에 부합하게 써야 한다. 여행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과장하여 쓰는 것은 작문 윤리에 맞지 않는다.

4단원 실전 모의고사

본문 206~211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① 06 ㉠ 어리석다. ㉡ 가없다(불쌍하다). ㉢ 많다. 07 해설 참조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 다정다. ㉢ 무심치. ㉣ 연구토록 14 ⑤ 15 ③ 16 ③ 17 ② 18 ④ 19 ① 20 ⑤ 21 ② 22 ④ 23 ④ 24 해설 참조

01 ㉠은 '배가 없건마는'으로 풀이된다.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가, 'ㅣ'나 반모음 'ㅍ' 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가, 'ㅣ'나 반모음 'ㅍ'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겹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뵈'는 반모음 'ㅍ'로 끝나는 명사이므로 주격 조사가 겹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02 '썩룩미나라'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 'ㄷ'가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ㄷ'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돌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인 어두 자음군이 쓰였다.

03 이어적기(연철)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표기하는 방식이고, 끊어적기(분철)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지 않고 앞 음절의 형태소를 밝혀 표기하는 방식이다. (나)에서는 '도둑실적'처럼 이어적기 방식만 나타나고 끊어적기 방식은 확인할 수 없다.

04 현대 국어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만 종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츠' 받침은 현대 국어에서는 'ㅅ'이 아니라 'ㄷ'으로 소리 난다.

05 ㉠ '니르·고·저'가 현대 국어 '이르고자'로 단어의 형태가 변화하였다는 설명은 맞지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영향으로 어두의 'ㄴ'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ㅣ' 모음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06 '어리석다.'를 의미하던 중세 국어 어휘 '어리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쓰인다. '가없다.'를 의미하던 중세 국어 어휘 '어엿브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다.'의 뜻으로 쓰인다. '많다.'를 의미하던 중세 국어 어휘 '하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뜻으로 쓰인다.

07 | 예시 답 | ㉠은 '바+ㅣ'가, ㉡은 '나+ㅣ'가 결합된 말로, 'ㅣ'나 반모음 'ㅍ' 이외의 모음 뒤이므로 주격 조사 'ㅣ'가 쓰인 것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과 ㉡에 쓰인 주격 조사 'ㅣ'와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과 ㉡에 쓰인 주격 조사 'ㅣ'는 썼으나 그 이유가 미흡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8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 즉 단어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은 표의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09 한 단어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를 표기한다. 따라서 '가꾸다'는 된소리로 적는다.

| 오답 풀이 | ① '갑자기[갑짜기]'는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② '잔뜩[잔뜩]'은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된소리로 적는다.

③ '국밥[국밥]'은 'ㄴ'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④ '쓱쓱[쓱쓱]'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지 만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10 '날알'은 원래부터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으므로 'ㄷ' 받침으로 적는다.

| 오답 풀이 | ① '무릇', ③ '늦그릇', ④ '덧저고리'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ㅅ'으로 적는다.

⑤ 제29항에 따라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리는 경우로, 'ㄷ'으로 적는다.

11 '연도'는 명사로 쓰일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도'로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산 연도'에서 '연도'는 명사로 쓰였다.

12 '미다지'는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미답이'로 적어야 한다.

13 ㉠은 'ㅎ'이 남아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 다정타, ㉡ 무심치, ㉢ 연구토록'이 된다.

14 '익숙하지 않다'는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이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이다. 따라서 준말은 '익숙지 않다'가 맞다.

| 오답 풀이 | ① '흔하다', ③ '간편하다'의 준말은 'ㅎ'이 남아 뒤에 오는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이다.

② '거북하지', ④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이다.

15 '딸기√다섯√개√만√천√원'에서 '만'을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만'은 의존 명사가 아니라 수 관형사이다.

16 ㉠의 '박은 듯'에서 '듯'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번쩍'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을', ④ '이다', ⑤ '커녕'은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7 <보기>에 따라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서는 'ㅅ' 받침일 경우를 제외하면 '히'로 적는다. 그러므로 '꼼꼼히'로 적는 것이 맞다.

18 ④에서 '보다는'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서 '놀라기보다는'으로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만큼', ③ '지', '년'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뿐'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9 '가만히'는 부사의 끝음절이 '이'나 '히'로 나는 경우로, '-히'로 적어 '가만히'로 써야 한다. 따라서 '이'로만 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문맥상 '있다가'가 맞다.

③ 문맥상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어미인 '-던'이 쓰인 '않았 던'이 적절하다.

④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구매한 지'가 맞다.

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으므로 '쏟출한'이 맞다.

20 ⑤에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의미일 때는 '붙이다'를,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낸다.'의 의미일 때는 '부치다'를 써야 하므로, 두 단어의 쓰임이 바뀌어야 한다.

21 (가)에서는 복합양식성, 하이퍼텍스트, 상호 작용성 등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나 1인 미디어 방송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22 (다)에서는 매체 자료 생산자와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산자와 소통하는 내용 중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관련 기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이용자들이 댓글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운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③ (다)는 생산자가 이용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모두 디지털 매체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23 (나)에서는 댓글을 쓰는 이용자 간에, (다)에서는 매체 자료 생산자와 이용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4 | 예시 답 | 댓글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에 들어갈 말을 (가)의 구절에서 인용하여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에 들어갈 말을 (가)의 구절에서 인용하여 썼지만, 다른 부분을 인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1 ⑤ 02 ②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⑤ 06 ③ 07 해설 참조
08 ④ 09 ⑤ 10 ⑤ 11 해설 참조

01 이 글은 웹툰 「정년이」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평하고 있다. 웹툰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을 통해 작품 비평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기준에 독자들에게 익숙한 소리를 다룬 웹툰 작품들과 「정년이」를 대비하여 「정년이」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② 「정년이」에서 독자에게 낯선 여성 국극의 소리를 형상화한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③ 웹툰의 특성을 나타내는 ‘무한함’이란 단어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끌고 있다.

⑤ 노랫말을 표시한 사례, 다양한 기법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사례 등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2 (가)의 「정년이」는 시작과 동시에 소리를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웹툰의 태생적 한계를 표출한다. ‘주인공 정년은 걸쭉한 판소리 한 곡을 뽑아낸다.’를 통해 시작 부분에서 인물이 소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글쓴이는 「정년이」가 여성 국극의 낯선 전통 음악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해 표현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웹툰에서 가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살려 배경 음악을 삽입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정년이」가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 웹툰에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하지는 않았다.

04 **| 예시 답 |**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버랩은 과거나 현재 등 시간이 일시적으로 겹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줄 때 주로 사용되지만, 「정년이」에서는 배우와 공연 캐릭터가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열연을 펼칠 때 겹쳐서 표현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정년이」에서의 오버랩 사용의 특징을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정년이」에서의 오버랩 사용의 특징을 서술하였으나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5 이 글에서는 무대가 현실 세계와 다른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열린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국극 공연을 통해 무대가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닫힌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인물들이 지닌 성별, 신분, 예술에 대한 편견과 극복을 제시하고 있다.

② (라)에서 「정년이」에서는 공연마다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여 준다고 하였고, 정년의 연기에 감화된 할아버지의 반응을 통해 국극 공연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에서는 인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하며 작고 큰 물결들이 함께 넘실거리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이고 찬란한 물결의 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가)에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등장인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닫힌 공간에서의 경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06 이 글에서는 인물들이 자신들의 내면에 스며든 ㉠을 극복하며 내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 ㉠에서 연기로 드러나 관객들에게 전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을 극복한 인물들의 성장이 ㉠을 통해 전해지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07 **| 예시 답 |** (나)에서는 「정년이」가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하여 입체적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에서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나)의 비평 요소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나)에서 주목하는 비평 요소를 썼지만, 내용이 미흡하거나 (가)에서 다른 부분을 인용하여 서술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8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고서나 실제 연구 결과를 활용해 문제 상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지만 전문가의 인터뷰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09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였다.

10 ‘동그라미’는 지금부터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했지만, ‘세모’는 악영향이 심각하지만 합성 섬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 난감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11 **| 예시 답 |** 미세 플라스틱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해양 생태계와 인류가 위험하므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의 형식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으나,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미흡한 경우	2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